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수용자 종합문예지

2024 봄 호 | 통권 465호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새길

희망찬 미래의 디딤돌

CONTENTS | 목차

표지 시

표4 봄의 씨앗 | 전주교도소 교위 최현중

직원 글

04 내가 떠나는 날 |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신봉호
05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엄용렬
06 고마운 사람 | 대구구치소 교감 조경동
08 나의 아버지 | 인천구치소 교사 박성수

테마원고 - 고마운 사람

12 아버지의 구겨진 신발 | 이정균
13 나만 몰랐던 고마운 사람들 | 강진호
14 아버지 당신이 좋습니다 | 권선홍
15 엄마 반찬 | 박광진
16 고마운 나비 | 김명필
17 고마운 나 | 오주연
18 고맙고 고마워서 | 김광식
21 국가대표 누나 | 김현철
24 고마운 사람 | 구윤서
26 베트남 친구 풍 | 장효빈
28 우리 형 | 김도현
32 주인집 어머니 | 강성웅
34 고마운 당신 | 권대원
37 우연과 우연 | 이기렬
39 나의 히어로 누나 | 이준경
42 누나의 손길 | 김동철
45 창문 밖 풍경(나의 행복 정원) | 최철환
48 고마운 사람 | 박자호

수기

51 엄마와 해바라기 | 김수일
54 그림에도 불구하고 | 신동수

수필

56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 오창근
59 내 손, 내 봄 | 박명숙
61 고백 그리고 간절한 바람 | 김재원



2024년 봄호 (통권 465호)

1948년 4월 1일 창간 2024년 3월 11일 인쇄
행정간행물 발간등록 : 111-1270000-000299-08
편집인 : 조진호 인쇄 : 서울남부교도소
디자인실 : 한양애드 (02)2279-0814
우편번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 : (02)2110-8663

용서의 글

- 65 용서를 구합니다 | 전진현
- 67 용서를 구합니다 | 최광표
- 70 용서의 글 | 이현수
- 72 용서의 글 | 김정환
- 74 용서의 글 | 김재연
- 77 고아였으면... | 유영아
- 80 시간, 그리고 용서 | 이준경
- 82 용서를 구합니다 - 복숭아와 아내 | 염문성
- 85 죄송하고 감사한 국민 영웅께 | 정재훈

시

- 88 어느 별의 유서 | 정정식
- 89 소금 향아리 | 이호윤
- 90 오늘 | 이태규
- 91 고향 | 장동인
- 92 오선지 | 김동우
- 93 봄날을 찾아서 | 박수복
- 94 녹는 중입니다 | 김진식
- 95 여보세요 | 윤수정

독후감

- 96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를 읽고 | 김현성
- 99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를 읽고 | 이은재
- 103 『부자 아바 가난한 아바』를 읽고 | 조두성
- 106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읽고 | 이호삼

소감문

- 109 집중인성교육 과정을 마치고 | 오형인
- 111 직업훈련을 마치며 | 서용훈

서간문

- 113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 문복운
- 115 고마운 아내에게 | 이재철
- 117 아버지와 나의 삶 | 김유일
- 119 박○교 변호사님께 | 김민중

감상문

- 121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 정우석
- 123 행복과 사랑은 아무나 하나 | 박병훈
- 125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 이윤희

내가 떠나는 날

신봉호 |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하루는 꽃잎이 내렸다
하루는 너무도 무더운 날이었다
하루는 낙엽이 내렸다
하루는 너무도 추운 날이었다
그런 하루가 세 번 흘렀다

하루는 지친 날이었다
하루는 무료하고 회의감이 드는 날이었다
하루는 너무도 즐거운 날이었다
하루는 보람찬 날이었다
그런 하루가 무수히 흘렀다

무수한 하루 속에 정든이를 떠나 보내는 날도 있었다
무수한 하루 속에 생소한 이를 마음으로 반기는 날도 있었다
무수한 하루들이 지나고 오늘이 왔다
오늘은 내가 떠나는 날이다



직원 시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염웅렬 | 서울남부교도소 교감

생각의 모양 속에 깃들인 작은 악이라도 그리지 않으리
길 위의 만남에도 죄와 손잡고 걷지 않으리
질은 안개 흐린 눈 감아도 오만함과 동무하지 않으리

들길에 피어 나는 이름 모를 꽃들로 즐거워하리라
별빛에 기댄 잎새 사이로 그리운 이를 그리워하리라
호수에 살포시 드리워진 보름달같이 당신께 감사하리라



고마운 사람



조경동 | 대구구치소 교감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였다. 되돌아보면 작년 2023년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육상 달리기 선수가 경기를 치른 것처럼 후다닥 지나온 느낌이었다. 나에게 있어서 고마운 사람은 누굴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같은 직장 동료분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싶다. 물론 가족은 당연하기에 여기서는 나의 직장 선배님, 후배님들을 말하고 싶다.

이 세상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모두의 도움을 주고받으며 앞으로 살아야 함에는 분명하다. 어찌 보면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는 직장 동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동료가 지금은 제일 나에게 고마운 사람일 것이다. 짧다면 짧은 23년을 교도관 생활을 하면서 나와 같이 근무했던 직원 동료분들의 이름과 얼굴이 생각난다. 첫 발령을 받은 청송에서, 20대 중반의 어리버리한 나를 동생처럼 성심성의껏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퇴근해서 관사에 혼자라도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런지 밥 먹고 가라고 해 주셨던 선배님들의 아련한 추억이 머릿속을 맴돌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안부 연락을 보내드리곤 한다.

학창 시절 교과서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문구가 있는 것처럼 어느 하나라도 인간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어찌 주변의 동료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간인데 말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맞는데 도움을 준 것은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반성해 본다.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반성해 본다.

얼마 전에 “감사 나눔”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교육 내용 중에 “상황감사”라는 부분에 나의 눈과 심장이 순간 멎게 되었다. “상황감사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적이 있었는가?” 강사님이 교육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나도 나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서 좀 부끄러웠다.

교육받고 난 후, 누가 나에게 “당신에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가요?”라고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주저 없이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라고 말이다.

오늘도 집에서 직장으로, 직장에서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하며,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에게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박성수 | 인천구치소 교사



새해 첫날 야간 근무를 마치고 부모님이 계시는 울산으로 향했다. KTX를 타고 울산에 도착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버지가 계시는 요양병원이었다. 아버지를 뵈는 설렘보다 이번에는 어떤 모습이실지 걱정되는 마음이 더 크다 보니 버스 차창 밖 국가정원이라는 태화강의 수려한 대나무 숲도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너울도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다.

작년 여름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후 다행히 뇌의 출혈이 잡히긴 하였으나 평소 건강이 좋지 않으셨던 터라 거동을 하기 힘드신데다가 뇌수종 증상이 있어 집으로 모시지 못하고 요양병원으로 모신게 벌써 3개월이 넘어간다. 거리가 멀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 뵈지 못하였는데 그래서일까 한 번씩 뵈 때의 모습이 더욱 강렬하게 스틸사진처럼 가슴에 남아 차창에 떠오른다.

뇌출혈로 쓰러지신 당일 아무렇지 않은 듯 성수 왔냐고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라고 하시던 모습. 나를 알아보지도 못 하고 말씀도 못 하시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조건 침대에서 내려오려고만 하시던 모습. 약에 취해서일까? 기력이 없어서일까? 하루종일 잠만 주무시던 모습. 기저귀를 차는게 창피하셨을까? 자존심이 상하셨을까? 기어코 기저귀를 벗어내던 모습. 비교적 또렷해진 의식으로 질문에 답을 하셨을 때도 있었구나. 병원을 퇴원하고 요양병원으로 갈 때 집에 가고 싶다 하시던 모습. 요양병원에서 어머니를 보고 “우리 각시왔나”하고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그래서 때로는 곧 괜찮아질 것 같다는 기대를 하였고, 어떨 때는 아버지가 우리를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절망을 하였고, 또는 아버지의 밝은 미소를 보며 나도 여유로웠으며 한편으로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해야 할지 걱정을 하던 시간이었다. 롤러코스터처럼 시시각각 아버지의 상태는 달라졌다. 기대도, 방심도, 절망도 할 수 없는 시간들.

이번에 갔을 때는 지난번보다 더 안 좋아지신 모습이셨다. 전에는 그래도 몸을 일으키시고 몇 마디 말도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눈도 뜨지 못 하시고 계속 누워만 계셨다. 묻는 말에 힘들게 겨우 두세 음절의 말만 하시고 누워 계시는 아버지. 기력도 없이 양상하게 마른 모습을 (아버지께서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코로 관을 통해 물이나 영양음료를 투입하고 있다) 보니 곡기를 끊으면 끝이라는 말, 부정하고 싶은 그 말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증명되는 듯하다.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삼켜야 할까?

불 때 마다 아버지는 조금씩 그 비참함의 강도를 높여가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다.

젊었을 때의 아버지는 풍채가 좋으시고 호탕한 분이셨다. 잡기에 능하시고 유머감각이 있으셔서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았으며 집에서는 우리 3남매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셨다.

퇴근할 때 우리를 불러 시장에서 군만두며 어묵이며 떡볶이를 사주시는 건 다반사였고, 조금 늦게 퇴근하시는 날은 당시로는 귀한 후라이드치킨을 사가지고 오셨으며 여름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수박을 원 없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여느 아이들처럼 야구며, 축구며 공놀이에 빠진 우리 형제를 위해 출장갔다 오실 때마다 운동용품을 사다 주셔서 장비가 귀하던 그 시절에 동네에서 최초로 가족으로 된 야구 글러브와 축구공이 있었고, 알루미늄 배트가 있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우리 형제가 끼지 않으면 장비가 없어 야구도 축구도 못할 정도였다.

당시 두 살 터울의 동생과 나에게 최고의 여행은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아버지는 설당을 생산하는 회사에서 대형트럭을 운전하셨다) 서울, 대전 등으로 갔다 오는 1박 2일의 여정이었다. 아버지의 넓은 어깨 뒤에서 바라보는 고속도로와 주변 풍경은 아무리 봐도 지겹지 않았고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은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당시 영남은 롯데 제품 밖에 없어서

휴게소에서야 해태제과의 ‘봉봉’이나 ‘부라보콘’을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친구들에게 큰 자랑거리였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평소 먹어보지 못하는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난 후 영화를 보기도 하고,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그때 본 ‘소림사주방장’이라는 영화나 대전 야구장 등은 아직도 기억나는 추억거리이다.

어릴 때 나는 동네의 말썽꾸러기였는데 야구한다며 축구한다며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유리창이란 유리창은 깨먹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였다. 일주일에 유리창 한 장 정도는 애교 수준이었다. 안경을 깨먹는 것도 부지기수, 심지어는 일주일에 세 번이나 안경원을 갔던 적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에 혼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라면서 꾸중 한 번 들은 적이 없고 체벌 한번 받은 적이 없었다. 그냥 어릴 때 그런 것은 당연한 거라고, 다 크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런 적도 있었다. 내가 동생을 자주 괴롭히고 때리니까, 아버지는 나를 혼내는 대신 방에다 샌드백을 설치해주셨다. 지나가는 말처럼 동생 때리지 말고 샌드백을 치라고 하시면서… 물론 샌드백을 설치한 후 나의 주먹질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이후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다. 항상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실 수 있는 분이셨다.

고등학교 때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고등학생의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일탈행위로 보는 시선이 많았다) 어쨌든 아버지께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고백을 하였더니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 늦게 다니지 말라는 게 전부였다. 오히려 잔뜩 긴장하여 이야기를 꺼낸 내가 무안할 정도였다. 아버지는 그러셨다. 항상 이해해주려 하셨고 자식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

언젠가 한국인 남성의 심리를 다룬 다큐 프로그램을 보면서 울었던 것은 그런 아버지셨기 때문이었다. 중년의 남자들이 어릴 적 부친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과 학대를 이야기하는 인터뷰 도중 말을 잊지 못하고 굵은 눈물을 떨구는 장면이 연이어 나오는데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고 목구멍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아파하는구나!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 때문에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아프구나!’란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던 큰 축복이었다는, 나에게는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때늦은 깨달음 때문이었다.

시간은 야속하게도 멈춤 한번 없이 계속 흘러서 나는 추억하는 그때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나이가 되었고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썬 노인이 되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다. 나의 기억 속의 슈퍼맨 아버지는 여전히 생생하고 든든한데 현실의 아버지는 수척하고 초라해진 모습이다. 흔히 '자식은 효를 다하려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말은 틀린 말 같다. 앞뒤가 바뀌었다.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기다려줘도 자식이 효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더욱 죄송한 마음이다.

아버지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뭔가 거창한 걸 기다리신 건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아버지와 캐치볼을 하며 야구를 배우고, 아버지의 격려 한마디에 힘을 내고,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을 가장 즐거워하던 아들의 모습을 기다리신 건 아니었을까?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든든해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존재로 더욱 빛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신 건 아니었을까? 그 답들은 알 수 없으나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아버지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수십년이 지난 미래에도 언제나 자랑스런 최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고마운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구겨진 신발

이정균

학창시절 신발장에 놓인 아버지 신발을 보니
구겨진 신발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왜 이것만 고집하시는지 여쭙봤지만,
아버지는 이 신발이 가장 편해서라고 하셨다.

성인이 돼서 좋은 신상 신발을 선물로 드렸지만,
한두 번 신으시고는 불편하다고 하셨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신발을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구겨진 신발은 아버지의 고된 하루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아버지의 신발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을 대변해주는 인생과도 같은 신발이었다.

나이가 들어보니 아버지처럼 신고 있는 편한 신발이,
나의 고된 하루를 위로해주는 고마운 신발이었다.



작품평

삶이 바다를 향해하는 것이라면, 신발은 사람을 신고 세상을 떠돌 수 있었던 배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신발은 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간직한 흔적이겠습니다. 소중한 가족이 우리에게 편한 신발과 같은 것 아니겠는지요. 아버지의 남모를 그 힘겨움이 우리를 먹여 살렸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나만 몰랐던 고마운 사람들

강진호

방파제 홀로 있는 등대처럼 나는 혼자라 믿고 살았다.
아무리 외쳐도 불러 보아도 손짓을 하여도
지나가는 배들은 알 턱이 없다.

그렇게 나는 홀로 바다라는 인생에 내던져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았다.

파도에 부딪히고 바람에 부딪히고 비에 젖어 가며
상처 입고 혼자 버틴다.
그렇게 인생은 혼자고 무의미하다.

그렇게 하루하루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나에게
지나가는 배가 말했다.
오늘도 바닷길을 밝혀 주어 고마워.
안전하게 또는 위치를 알려줘서 고마워.

그렇게 듣고 나니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무의미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를 고마워 해주는 이들 때문에 나 역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나 또한 그들에게 인생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의미를 부여 해준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말한다.

작품평

사람은 모두 고독합니다. 홀로 있는 것이 싫어서 친구를 사귀다는 말이 있지요. 아무리 어둡고 무서운 곳일지라도 누군가 함께 있다면 견딜 수 있지 않을까요. 한자인 사람 人은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는 내가 모르는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란 것을 생각해봅니다.



아버지 당신이 좋습니다

권선홍

폭신평신향 품과
커다란 키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손

겨울에는 연을 만들어주시고
봄에는 나를 차에 태우고 바람을 쐬시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닦은꼴
영혼부터 몸까지 닦은꼴

삼삼오오 모여드는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나의 형이 되고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는

그런데 나는 말입니다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당신이 좋습니다
남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영화배우 같다고 치켜세워주는
아버지 당신이 좋습니다

작품평

아버지가 형이나 친구처럼 되는 게 쉽겠는지요.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건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준다는 건 혈육이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시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눈에 자식이 얼마나 귀한지 나이가 들어도 어떤 처지에 있어도 변함없다는 것, 웬지 듣드립니다.

엄마 반찬

라면이나 먹을까 싶어 후딱 끓여 상에 놓고
김치라도 꺼낼까 싶어 연 냉장고 속
수많은 반찬통들

언제 해다 주셨는지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래되어
각자의 자리에서 흰 꽃을 피워버린
울 엄마 마음들

아들이 배품진 않을까. 얼마나 좋아할까.
마음으로 울고 웃으며 짹짹 채우셨을
울 엄마 사랑들

흰 꽃 손으로 살살 건어내곤. 용기 내 입에 갖다 댄다.
탈 날 내 뺏속보다
탈 날 울 엄마 마음이 더 걱정이라서.

많이 늦었지만 이제야 전해본다.
너무 맛있게. 짹짹 씹어 먹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박광진



작품평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입니다. 엄마는 좋은 게 있으면 자신보다 자식에게 다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미루고 버릴 때가 되어서야 압니다. 엄마 맘 상할까봐 정성을 챙겨 먹는 마음이 좋습니다. 나는 아프더라도 엄마는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자식의 심정이 뭔지 알 것만 같습니다.

고마운 나비

김명필

햇살 정 쏟듯
쨍쨍 내리는 집 마당 가
하얀 나비 한 마리 놀고 있네.

어디서 온 나비 햇볕을 즐기고 있나!
봄날 인생같이 내린 햇살
값없이 가버릴까 봐

꽃잎 아래 시간을 잠재우고
소풍 마친 햇살 모아
행복이 모이는 곳에 한 줍씩 놓아드리네.

작품평

시선이 참 따뜻합니다. 햇살이 정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따뜻한 햇살만 보면 이 시가 생각날 거 같습니다. 나비가 햇볕을 즐기는 봄날 같은 인생. 줄 것이 없어 햇살을 모아 행복한 곳에 한 줍씩 나눠드리고 싶다는 시인의 마음이 잘 읽히는 시입니다.

고마운 나

상처 받음이 좋다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후회가 있음이 좋다
반성한다는 말이니까
회상할 수 있음이 좋다
추억이 있다는 얘기니까
사랑할 수 있음이 좋다
모든 걸 이겨낼 준비의 신호니까
지금 순간이 좋다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니까
이런 내게 고맙다
용기가 남은 나이니까



작품평

상처, 후회, 반성은 살면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선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흠 많은 자신에게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용기가 좋습니다. 자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모든 일을 바르게 해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 “테마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고맙고 고마워서



김광식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때. 나는 내 사건에 대한 재판의 두려움과 고통보다 또 다른 걱정 속에 지냈었다. 같은 거실, 같은 사동에 지내는 사람들 중에 밖의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를 듣고 직접 보았었고 그로 인해 수용생활 자체가 영망이 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같은 상황이 오진 않을까하는 염려로….

단기간 끝날 이곳 생활이 아니었고, 어쩌면 아주 고된 시간을 가족과 격리되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상했던 내게 그런 모습들은 아프게만 느껴졌다. 그러면서 냉정하게 드는 생각은 어쩌면 오랜 시간을 아내에게 무거운 짐이 되느니 차라리 아내가 나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덜 힘들게 살 수 있게 내가 먼저 헤어지자 얘기하는건 어떨까 하는 것이었다. 마음을 다잡고 궁리 끝에 아내가 내게 접견을 왔을 때, 나는 차마 하기 싫은 이혼 얘기를 어렵게 꺼냈다.

“당신에게 어쩌면 꽤 오랜 세월을 짐만 될 것 같아. 당신이 이 암담한 상황을 그나마 마음 편히 헤쳐나가려면 내가 당신과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 괴롭고 힘든 심경을 꺾꺾 눌러 참으며 내가 얘기를 하자, 아내는 단호히 “이혼이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더욱 이런 상황에 이혼은 말이 안돼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 절실한 건 나와 당신이 헤어지는 게 아니라 두 손 꼭 잡고 무너지지 않는 것. 특히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불행은 겪게 하지 않는 것. 그거 하나예요. 난 밖에서 악착같이 살테니



당신은 그 안에서 버티고 또 버텨요. 언제가 될 진 몰라도 당신 나올 때까지 그렇게 견달테니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힘들게만 살았어요. 나도 당신 위해서 그 정돈 충분히 감수할테니 같이 힘내요.”

아내의 단호하고 결연한 한마디 한마디에 한없이 미안했고 고마웠다. 집견 마치고 돌아와 동료들이 볼까봐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었다. 내가 자초한 일이었으면서도 막상 닥치니 두려워 다 포기하려 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그 날의 기억이 이리도 생생한데, 시간은 훌쩍 지나가게 된다.

나는 비록 간혀 있긴 하지만 세타에 시달림 없이 이렇게 살아왔다. 늘 똑같은 생활 똑같은 시간 속에, 그러나 아내는 가정의 빈자리를 메꾸려 온갖 고생 마다 앓고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며 나에게도 변함없는 정성을 쏟고 있다. 화내고 싶을텐데도, 울고 싶을 텐데도, 주저않아 통곡하고 싶을텐데도, 그런 내색 한번 없이 날 보며 미소짓는다.

차라리 내게 화풀이 라도 해주면 좋으련만, 항상 아내는 그저 나에게 어디 아픈곳 없냐고 보고 싶다고, 평평 내리는 눈 맞으며 당신 손 잡고 걷고 싶다며 소녀처럼 맑게 웃는다. 겨울이 오니 아내의 한결 같은 말이 더욱 생각이 난다.

요즘 참 즐겨부르는 노래가 있다. 조항조 가수의 '고맙소'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물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나라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아내가 그랬다. 내가 무너질 때 내 손을 감싸듯 나를 지켰고, 죄지어 손가락질 받을 때 나라서
함께 가겠다고 했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어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노랫말처럼 아내는 나로 인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지금껏 살고 있고 난 더 없이 미안하고
시리게 아프다.

내 형기를 모두 마치고 나가는 날 아내를 따듯이 가슴에 안고, 고통속에 지낸 아내 삶을
위로하려다. 그리고 '고맙소'를 불러주리라. 고맙고 또 고마워서.

12월 아내가 없는 또 다른 겨울을 맞는다. 꼭 아내와 하얀 눈 맞으며 캐롤이 흐르는 거리를
손잡고 거닐고 싶다. 여보,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나 오늘도 당신 생각을 하며
웃고 있어, 곧 만나자.

작품평

남편이 영어의 몸이 되었을 때 아내의 이혼 신청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도 아내를 자유롭게 풀어주자는 생각으로 '이혼'이란 말을 꺼냈나 봅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절실한 건 두 손 꼭 잡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해준 아내는 정말 천사입니다. 나중에 조항조의 <고맙소>만 불러드릴 게 아니라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도 불러드리세요. 출소하면 꼭 손을 잡고 걸을 거지요?



국가대표 누나



김현철

“요즘 밥 잘 못 먹니? 얼굴이 아주 반쪽이 됐네. 안에서 무슨 일 있는 거야?”
“여기서 무슨 일 있을 게 뭐가 있겠어~ 그리고 나 5kg 쪼그러든?”
“그 안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반성하고 또 반성하고, 속상한 일 있어도 밥 굶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누나한테 바로 전화해 알았지?”

“아이고 누나야~ 내가 애요? 널 모르면 나도 마흔이요~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너가 마흔이 아니라 여든이 되어도 내 눈에 너는 애야!”

오늘도 기분 좋은 투닥거림 속에 누나와의 접견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을 떠올려 보자면 모래알만큼이나 많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누나’입니다.

어릴 적 저희 남매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저는 올림픽을 꿈꾸던 양궁 꿈나무였고, 누나는 도내에서 주목 받는 펜싱 유망주였기에 쉽게 전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집안 사정과 아버지 사업 문제로 온 가족 모두 서울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던 누나와 저는 이 곳에 남아 계속 운동을 하고 싶다며 부모님을 졸랐고 결국 부모님만 먼저 서울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것 같아 마냥 신나기만 했던 저와는 달리 누나는 부모님을 대신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를 돌봐주었고 부모님의 빈자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집안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 새벽 운동을

다녀와 제 아침을 차려주고 매일같이 교복을 다려주고 도시락까지 싸주었습니다. 훈련시간에 시간을 내 집에 와서 청소며 빨래며 온갖 집안일을 했고 매일 제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공부는 잘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지 항상 제 고민을 들어주려 애썼고 무엇이든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작 세 살 차이 밖에 안났을 뿐인데 누나는 저에게 엄마이자 아빠였고 든든한 보호자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을텐데 집안일에 철없는 동생의 뒷바라지까지 누나의 24시간은 늘 모자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누나의 헌신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를 쳤고 누나의 속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의의 부상으로 양궁을 그만두게 된 후 저의 방향은 더 심해졌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 말썽을 부리고 소위 말하는 '탈선 청소년'이 되어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시게 되면 속이 상하실까봐 누나는 부모님을 대신하여 저 때문에 학교에 매번 불러 다녔고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가며 저를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급기야 생활비를 들고 가출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며칠을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훈련을 받고 있어야 할 누나가 집에 있었습니다. 누나도 훈련 땀땀이 친겨냐라는 말에 누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펜싱을 그만두기로 했다고 이제 운동 안 할 거라고….

누나가 펜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저였기에 그 말을 믿지 않았었지만 자기 몸보다 아끼던 장비 매일 같이 정비하고 손에서 놓지 않던 장비마저 이미 처분한 뒤였습니다. 제정신이냐고 무슨 생각으로 운동을 접은 거냐고 다그치던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펜싱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동생만큼 좋지는 않다고… 누나 때문에 너까지 여기에 남은 건 아닌지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게 만든게 꼭 자기 때문인 것 같다고 미안했다고 우리 동생 마음을 더 헤아리고 보살펴야 했다고 이제 누나가 뒷바라지 열심히 할테니까 다시 시작해보자”고….

차라리 화를 내거나 저를 미워했더라면 저 또한 덜 미안했을텐데 담담하게 웃으면서 아무 일 아니라는 듯 말하는 누나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기만 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철없이 사고만 치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져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누나를 끌어안은 채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사고 안치고 열심히 공부도 하겠다고 수십 수백 번 다짐한 끝에 누나는 다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저 역시 이른 나이의 방향을 끝내고 늦게나마 학업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탈도 많았던 중학교 생활을 마친 졸업식 날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혀 합숙 중이던 누나가 축하해 주려고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누나가 온 게 너무 좋았지만 펜스레 축스러워 국가대표 안될거냐고 뭐하러 왔냐고 타박하는 저에게 활짝 웃으며 누나가 해 준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국대도 너~무 좋지만 현철이누나인게 난 더 좋아~ 우리 현철이가 잘 되면 금메달도 안 부러워~” 항상 저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누나의 마음에 보답하기는커녕 어리석은 잘못으로 큰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서 누나의 마음에 또 한 번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곳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누나는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고 수용복도 잘 어울린다고 농담을 하면서 얼어있는 제 마음을 녹여주려 애썼습니다. 웃으며 농담을 하는 그 마음속에선 얼마나 울고 있을지 얼마나 속이 상하고 걱정하고 있을지 알기에 그저 너무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안에서 걱정할까봐 아픈 것마저 숨기고 늘 씩씩한 모습으로 제 걱정뿐인 누나에게 이제 제가 말할 것입니다.

“누나 성실하게 줬잖 다 치르고 이 곳에서 나가게 되면 그 땐 내가 누나의 오빠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줄게, 못난 동생을 둔 덕분에 평생을 힘들다 지친다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우리 누나! 이제 언제든 쉬고 싶고 기대고 싶을 때 기댈 수 있는 내가 될게. 누나 정말 누나가 내 누나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 한 번도 제대로 말 못했는데, 누나 정말 사랑해”

작품평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었지만 그대는 양궁 국가대표가, 누나는 펜싱 국가대표가 될 꿈을 키워갔으니 장한 남매입니다.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그렇게 동생을 챙겨준 누나였는데 그대는 사고를 치고 다니는 비행 청소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생을 돕고자 펜싱도 그만두겠다고 하는 누나 앞에서 눈물로 반성하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국가대표 상비군에 뽑혀 합숙 중이던 누나가 찾아와 축하해주는 장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출소하면 이제는 누나가 기댈 수 있는 튼튼한 나무가 되십시오.

고마운 사람



구윤서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인연을 만나게 된다. 부모님, 형제, 친구, 학창 시절 은사님, 가족, 이웃 등 모든 분이 고마우신 추억과 사연들이 있는 고마운 분들이다. 더구나 눈앞이 캄캄할 때, 힘들 때일수록 고마움이 뒷받침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어주는 힘은 그야말로 대단하다.

나의 학창 시절부터 은사님께서서는 평생을 지켜주셨고 생명력을 주시기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의 고비에도 또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은사님의 고마우신 사연을 말 그대로 옮겨본다. 가톨릭 중·고등학교를 다녔기에 우리 은사님은 세계사를 맡으신 수녀님이다. 세계사 과목은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때는 거의 만점을 받으니 칭찬을 더 받고 학교에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시절이었다.

학교에서 바자회를 할 때 학생이 제출한 그림, 인형 등 등…. 우리 은사님은 엄마처럼 저녁밥 챙겨 먹이고, 형편이 어려워 친구의 어머니가 병원도 못 가신다고 직접 가정방문 하셔서 어머니 치료에까지 전심전력을 다하신 은사님이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나에게는 거의 엄마 역할까지 하신 분, 세월이 흘러 나는 취업을 하고 수녀님께서서는 미국 유학을 가지게 되었다. “수녀님 유학 가시는 데 무엇을 선물로 드릴까요. 여쭙어보니, 응 우리 애제자 맘도 비행기에 태워서 함께 간다. 그러니 직장생활 잘하고 도착하는 대로 편지할게” 항상 다정다감하신 말씀으로 귓전에 있는 은사님, 평생을 나에게 항상 “응, 그랬구나. 응, 잘했네. 놀랍다.”라고 하시면서 이 못난이를 애제자로 생각하시고 나의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도 그럴수록 마음을 다해서 찾아주시고 다독여주신 은사님께 현재의 이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죄스럽고 부끄럽기 이를 데가 없었지만, 엄마 같으신 은사님께 수용된 상황을 알려드리는 아픔을 전달하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은사님과 아름다운 나눔의 추억들이 차곡차곡

간직되었기에 지금 그 아름다움을 하나씩 펼치면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음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고마움이라고 생각한다. 잘되기를 바라시고 애제자라고 칭하시는 은사님께 교통정리 잘못하고 처리가 잘못된 나 자신의 모습을 이제 연로하신 은사님께 죄스럽기만 하다.

세월이 흘러 엇그제 같은 데 하늘에 별이 총총했던 그 시절이 꿈 많은 그 시절이 어느새 우리 은사님은 80대가 되셨고 제자인 나는 60대가 되었다. 평생을 함께하자고 하신 은사님이신데 누구나 세월이 가면 늙고 서서히 건강도 쇠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은사님께서도 이제 관절마다 아프시고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으셔서 맘이 무척 아프고 애뜻하다. 은사님 미국 유학 중이실 때 추위에 약하신 분이셔서 뜨개로 조끼와 목도리를 떠서 보낸 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면서 눈이 보이지 않으시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조끼와 목도리와 저를 두고 우리 애제자 잘 이겨나갈 것이라면서 이제 좋은 일에 전력을 다하고 이 과제를 풀어나가자고 편지를 보내주시니 나는 그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수용 생활에 은사님의 고마움을 몸과 마음의 제일가는 양식으로 삼고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첫 취업이 되었을 때 향기로운 후리지아 꽃다발 한 아름 안겨 주시면서 “우리 제자 잘할 거다. 축하해.” 하시면서 기뻐하시는 환한 모습과 따뜻한 격려의 말씀은 평생 되새겨지는 고마움으로 남는다. 이제 은사님을 돌보아드려도 모자랄 시간에 나의 감당도 못 하고 걱정을 크게 끼치고 있으니 애달픈 심정 이를 데 없는데 뵈 수 있는 그날까지 유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맘이다. 은사님께서 답장하시기를 “애제자야! 꼭 잘 살아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길 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야지 나도 또한 누군가에게 고마움으로 남는 사람이 되어 나의 작은 선행의 고마움이라도 상대방에게 힘과 살맛이 나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야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실행을 해야지 한다.

고마우신 수녀님 여태껏 고마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꼭 마무리는 향기 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수녀님 꼭 기다려 주시고 자신을 열심히 정비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도록 하고 싶다.

작품평

가톨릭 재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세계사를 가르쳐주신 수녀님을 평생 은사로 모시고 존경하며 따랐으니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성인이 되어 그대는 취직을 했고 수녀님은 유학을 갔다고요. 추위를 잘 타는 수녀님께 조끼와 목도리를 떠서 보냈으니 애제자가 맞네요. 세월이 흘러 은사님이 80대가 된 것은 그렇다 치고, 60대의 그대는 스승의 가르침을 까맣게 잊고서 죄진 몸이 되었군요. “애제자야! 꼭 살아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길 빈다.”고 답장을 하셨다고요. 수녀님이 제자 꾸지람을 덜해서 이리 된 모양입니다. 상봉의 날 무릎 꿇고 비시길.

베트남 친구 풍

중국 여행 때 우정을 가르쳐 준 친구..
phoung(풍) 고맙습니다.



장효빈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3년 여름방학. 혼자서 무작정 배낭을 메고 여행을 떠났다. 호기롭게 출발 했지만 처음 가보는 중국은 매우 낯설었다. 그곳에 아는 사람이라고는 전무했고, 첫 인사는 한인 민박집의 여행객들과 함께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동갑내기 친구 풍은 나에게 있어 가뭇에 단비 같은 존재였다. 그 친구는 베트남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온지 4년이 넘은 베테랑(?)이었다. 풍은 말수가 적고 차분 했지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다. 그 덕분에 우리들은 빠르게 친해 질 수 있었다.

풍은 계절학기로 학교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나를 위해서 베이징 곳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곳을 보여주기도 했고, 친한 친구들과 맛집들도 많이 소개해 주었다. 우리는 낯선 중국에서 처음 만났지만 마치 오래 만난 친구처럼 죽이 정말 잘 맞았다. 하지만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곧 나는 다음 여행지인 상하이로 떠나야 했다. 바쁜데도 야간열차를 타러가는 나를 위해 샌드위치까지 챙겨주는 그와 기차역에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깊게 나눈 우정을 앞에 두고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 신기한 것은 그 인연과 우정이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교를 졸업한 나는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창업을 했고, 결혼을 하고 사랑스러운 세 아이들을 키우며 행복하고도 바쁜 시간들을 보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키워가는 동안 풍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변호사가 되었다. 그 역시 결혼을 했고, 신기하게도 나와 똑같이 세 아이들을 낳았으며, 기업자문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는 서로 이 메일과 SNS로 꾸준히 우정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풍을 다시 만날 기회가 생겼다. 우리 회사가 베트남 호치민으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사업이 잘되는 것도 기뻐지만 오랜 친구를 만날 생각에 첫 출장을 앞두고는 설레어서 여러날 잠을 설치기도 했다.

드디어 현지에서 일정을 마치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생각해보면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데, 가슴이 그렇게 설레었다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었다). 드디어 10년이 지난 2013년에 만난 내 친구 풍... 우리는 단숨에 서로를 알아보았고, 반가움에 한동안 부둥켜안고 있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우정은 내가 가족들을 데리고 베트남 출장을 가면서 가족들끼리의 유대관계로도 이어졌다. 당연히 두 가족이 모이면 서로 웃고 떠드느라 행복이 배가 되었다. 또한 그 후로도 풍은 내가 현지에서 대표사무소, 현지 법인을 거쳐 회사를 확정하고 매각을 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었다. 물론 정당한 보수는 지불했지만, 어쩌면 이렇게 '진정한 인연인가?' 하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곳에 있기에 가끔 가족들을 통해서 편지와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 하지만 곧 내가 마무리하고 사회로 돌아가면 베트남에서 가족들을 앞에 두고 했던 약속처럼 풍과 그의 와이프 그리고 아이들 셋을 한국으로 초대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밤새 나누고 싶다.

내 경험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인생은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 모르는 하얀 도화지와 같다. 지금 주변에 있는 작은 인연이 나처럼 20년이 넘게 소중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주변에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 보는 건 어떨까? 오늘따라 유난히 활짝 웃는 게 예쁜 내 친구 풍이 너무나도 그리운 날이다.

작품평

중국 북경을 배낭여행으로 돌아보던 중에 계절학기 공부를 하러 온 베트남 동갑내기 풍과 친해지게 되었다고요. 훗날 창업한 회사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되어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으니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가족들끼리로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니 부럽기까지 합니다. 외국인과 절친이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대가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으니 우정의 가교가 지금은 끊겨 있는 상태로군요. 출소하면 베트남에 한번 가셔야겠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와도 좋고요.

우리 형

김도현

아버지께서는 일찍 돌아가셨다. 어머니께서는 우리 사남매를 키우시려고 밤낮없이 일만 하셨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누나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고 누나들의 관심을 받으며 나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

나에게는 4살 차이나는 형도 한 명 있다. 누나들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거나 사고를 쳐도 좋은 말로 대해주었지만 형은 아버지 같이 나를 엄하게 대했다. 나는 그런 형이 싫었다.

고등학교 때, 누나들과 형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다보니 집에서 서로의 얼굴 보는 일이 점점 적어졌다. 자연스레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매일 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친구 집에 잔다고 말씀드리고 밤새 노는 시간들이 많아졌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김도현이 너 외박하지마라! 한 번만 더 외박하면 혼날 줄 알아! 알았나? 집이 너 잠만 자는 곳 이가?”라며 나를 타박하는 형이었다. “형도 집에 잘 없잖아? 왜 내가 뭐 탄 짓 하나? 그냥 친구 집에서 잘 수도 있지! 와카는데”라며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었던 내가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생겼는지 형에게 대들었다. 형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서 들어오지 않기에 내가 말이 심했나 싶어 반성하고 있는 중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오는 형을 보았다. “야! 너 옆드려 안 되겠다.”라며 흥분한 형을

보자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머니께서 말려 주셨다. “○○아 그만해라! 도현아 어서 형한테 잘 못 했다고 해! 어서!”라며 어니께서는 중간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며 우리를 말리셨다. “형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형이 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 때 어머니께서 나의 뺨을 치셨다. “도현! 어서 형한테 사과해! 어서 안 해?”라며 소리를 지르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방으로 곧장 들어가 버렸다. 어머니가 내편이 아니라는 것에 슬펐다.

누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집으로 돌아왔다. 당연 나에게로 와서 “도현아 괜찮아? 엄마는 왜 도현이만 머라고 해!”라며 나를 위로해주었다. 그런 뒤 “도현아, 형 말 잘 들어 쫓으면 좋겠어. 형 맨날 일한다고 잠도 잘 못자고 그런다 말이야 알겠지?”라며 마치 형이 불쌍하다는 것 같이 누나는 말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형은 맨날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사람 같다고.” 그렇게 형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형보고 아버지 대신 사랑을 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 그냥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형과의 말다툼 후 집에서는 형을 피해 다녔다. 형이 집에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형이 집에 없다면 집에 들어가곤 했었다. 그런 형이 나를 또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방망이를 들고 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통닭에 소주가 차려져 있는 밥상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도현아 앉아 봐라.” “왜? 요즘 외박하지 않고 집에 잘 들어온다.”라며 나도 모르게 물어보지 않는 말이 튀어나왔다. 집에 둘 밖에 없다보니 무서웠다. 누가 말려줄 사람이 없어서 말이다. “형이랑 소주 한잔 하자. 술 마셔봤나?” “내가 무슨 술을 먹노. 내 고등학생 아이가” “그래 술은 아버지한테 배우는 건데 형이 가르쳐 줄게.”라며 갓난아기한테 말하듯 나에게 속삭였다. 4살 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형의 모습은 못 오를 산처럼 거대해 보였다. 술은 두 손으로 받아라, 윗사람과 술을 마실 때는 고개를 돌려 마셔라, 윗사람이 술잔 들기 전에 술잔을 들지 마라는 등 주절주절 설명을 했다.

술을 많이 먹어보지 못한 나에게는 소주 반병으로 취기가 돌았다. “형! 나는 형이 무섭다. 아니 낯설다. 왜 맨날 머라고만 하노?”라며 용기를 내어 물었다. “자숙아! 학생이 공부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그러는 게 틀렸나?” “그래도 한 번쯤은 칭찬해줄 수 있는 거 아이가?”라며 어리광을 부렸다. “도현아! 너 대학까지만 졸업하자. 형 부탁이다. 그럼 앞으로 너에게 신경 안

즐게.”라며 마치 아버지같이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이 되었다. 형은 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런 후, 형은 뒤늦게 5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 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여 결혼을 하였다.

어머니와, 누나들과는 자주 통화하고 서로 수다도 떨며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지만 형하고는 한 번 통화에 1~2분정도도 서로 어색하게 한다. 나에게서는 동생이 없고, 아버지가 없다보니 아버지 마음이 무엇인지, 형에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런 누나가 나의 모습이 답답해 보였는지 “도현아 그거 아냐?”라며 문득 나에게 말했다. “뭐 말인데?” “형이 공부 잘했는 거?” 나는 계속 침묵을 이어 갔다. “○○이는 지 공부 잘하고 대학도 가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취업을 한 거야. 엄마 고생한다고 돈 벌어야 한다고. 또 너 대학 나올 때까지 뒷바라지해야 된다고.” “…….” “너 생활비, 등록금, 용돈 엄마가 준 게 아니고 형이 벌어서 너 주라고 엄마한테 준거야.”라며 끄끙 숨겨놓은 보물을 풀 듯이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누나가 나에게 말하는 것은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좋은 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비밀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이가 아버지 없다고 니가 어디 가서 기죽을까봐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냐?”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나?”라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냈다.

누나와의 대화 후,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책상에 앉아 한 참이나 울었다. 마음 깊은 곳에 꼭꼭 숨겨놓은 형에 대한 감정이 터져 나온 것이다. 경상도 남자라 형에게 표현을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형의 마음은 안다. 이상하게 형에게 표현이 잘 되지 않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 우리는 어느 덧 마흔이 넘었다. 한순간의 실수로 나는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다.

형수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이곳에 들어온 뒤, 형은 매일 같이 울며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그 것 때문에 힘들어 한다고 했다. 모든 사람들이 저런 형은 없다고 할 정도로 나에게 신경을 써 주었다. 지금도 가끔 전화 통화를 하면 1~2분도 되지 않고 끊을 정도로 서먹하지만 속마음만큼은 어느 누구보다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의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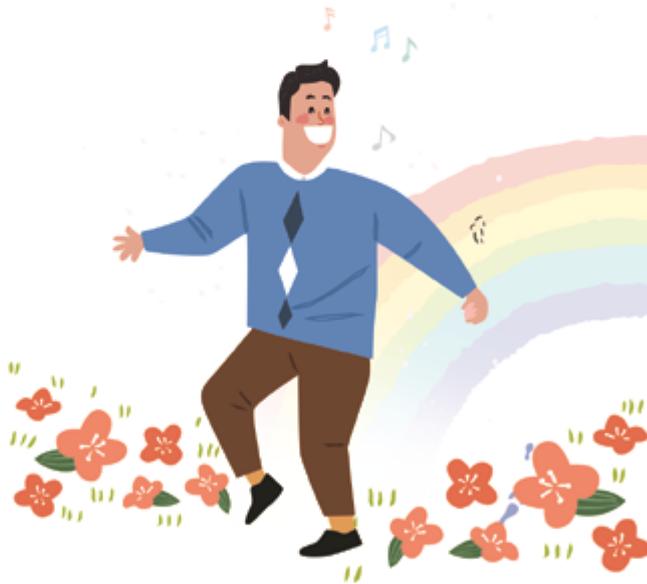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렇게 서로 만날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형이 그립고 보고 싶어 졌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형에게 고맙다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말 한 적이 없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 형이란 아버지였다. 아버지께서 곁에 없었지만 아버지 생각을 나지 않게끔 나에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 희생이 늘 당연하다고만 생각한 내 자신이 정말 후회가 된다. 나는 사실 용기가 없는 놈이다. 고맙다는 걸 고맙다고 말 하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놈이다.

삼국지의 유비, 장비, 관우도 서로 말하지 않아 오해하는 일이 생기고 서운한 일이 생겼다. 그러니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무엇이 싫은지 앞으로는 형에게 말하고 싶다.

“형! 학생 때 용돈도 넉넉히 챙겨주고, 대학교 등록금도 내주고, 이곳에 있는 나에게 매일매일 신경 써 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한다고 꼭 말하고 싶었어. 형 나가면 꼭 같이 소주잔 한잔 하자.”

그렇다. 내가 가장 고마운 사람은 우리 형이다.



작품평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일터에서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누나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며 자라났으니 형제끼리 커간 셈입니다. 네 살 위의 형은 동생의 잦은 외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동생을 꾸짖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탈선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썼습니다. 술을 예의 바르게 마시는 법도 형이 일일이 가르쳐주었습니다. 훗날 누나들을 통해 형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공부 잘하던 형이 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 바로 취직했다는 사실을. 동생의 등록금, 생활비, 용돈을 엄마가 아니라 사실은 형이 주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이런 형은 없습니다. 출소하면 아버지 이상으로 잘하기 바랍니다. 철없는 동생에게 아버지 이상으로 잘해준 형이니깐요.

주인집 어머니



강성웅

나는 2022년 11월 29일에 또다시 구속되었다. 알콜의존증이 심해 이번에도 술에 취해서, 술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죄를 지어 1년 6개월 형을 법원에서 선고 받았다.

나는 가족이 없다. 어릴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부모님의 부재와 그나마 의지하고 지내던 친형은 국제 결혼 후 일본으로 떠났다. 그 후 혼자라는 생각과, 원망감, 외로움에 술을 일찍 접하였고 술이라는 덫에 걸려 알콜의존증에 빠져 버렸다. 당연히 사회생활도 엉망이 되었고, 대인관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졌다. 그리고 사람들도 피하게 되는 대인기피증도 겪게 되었다. 그리고 30대 초반 즈음 사고를 쳐서 처음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출소해서 또 술에 의지하고 다시 죄를 짓고 그렇게 몇 번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니 십여년의 세월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안되겠다 싶어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콜중독 전문치료 정신병원에도 입원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번 구속 전에 고시원 생활을 하다가 보증금을 조금 모아 원룸월세 방을 구했다. 주인집 어머니는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도 받아 주시고 김치도 가져다 주시고, 방은 불편한 곳은 없는지 좋은 말씀도 항상해주시고 술에 취해 있으면 술 조금만 마시고 건강관리 잘하라고 하시며 항상 나를 신경 써 주셨다. 그렇게 세달 정도를 원룸에서 지내다 죄를 짓고 구속이 되었다.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 재판문제로 신경쓰느라 주인집에 연락을 드리지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마음이 조금이나마 안정이 되고 집주인 어머니가 생각나 죄송스러웠지만 어렵게 펜을 들어 솔직하게 편지를 썼다. 술을 마시고 사고를 쳐서 구속이되어 1년 6개월을 교도소에서 살아야하고 가족이나 친지가 없으니 지금으로서는 방세를 낼 수 없으니 조금있는 옷가지와 짐들은 창고에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들이 제가 가진 전부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2주후에 집주인 어머니께 편지가 왔다.

소식이 없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걱정되고 궁금하셨다고 편지줘서 고맙고 그리고 짐은 건들지 않고 방에 그대로 놔둘테니 죄값다 치르고 와서 방세는 걱정말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라는 말씀의 편지였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지하라고 하시고 제 이름앞으로 화광신문<불교신문>을 신청해 놓았으니 잘 읽고 건강히 지내라는 내용의 편지였다.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다. 출소 후가 또 걱정이 되고 계획도 없어 눈앞이 캄캄했는데 주인집 어머니의 따뜻한 편지 한통에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나도 감사드린다.

비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지만 집주인 어머니의 넓은 마음과 이해심에 정신이 들고 다시 시작하자는 용기가 생겼다. 불교 신문도 1년 넘게 잘보고 지내는 중이다. 가끔 집주인 어머니께 안부 편지를 보냈는데 요즘은 집주인 아버님이 노환이 있으셔서 병원에 다니느라 바쁘시다고 소식을 전해들었다. 나는 진심으로 아버님의 쾌유를 빌었다. 어머니께서 마음 써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성껏 기도하고 빌었다. 아버님께서 빨리 쾌유하셔서 병상에서 일어나시길... 이제 사회복귀가 얼마남지 않았다. 여기 있는 동안 반성하며 마무리를 잘 지으려고 한다. 사회에 복귀하면 집주인 어머니께 열심히 일해 밀린 집세도 드리고 술도 끊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용기내 살 수 있는 기회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집주인 어머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작품평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와의, 어머니와의 같이 살지 않게 되었나 봅니다. 형마저 일본으로 가버리자 홀홀단신으로 살면서 술을 빚하게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알코올중독 전문치료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였다니! 하지만 간신히 구한 원룸 월세방의 주인은 일흔이 넘은 할머니인데 친절하게 대해주어 감동을 많이 받았나 봅니다. 편지를 썼다고요. 여기서 1년 6개월 형을 살아야 하고 아는 이도 없어 방세를 낼 수 없으니 옷가지와 짐들을 창고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방세 걱정 말고 죄값 다 치르고 다시 와서 살라고 하고 불교신문을 신청해 넣어주니 이런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삭막하지만은 않음을 알게 되었지요? 이제는 흥부전의 보은박씨를 생각하세요. 그대도 베풀면 은혜가 돌아옵니다.

고마운 당신



권대원

유채꽃 만발한 제주 돌담길을 거닐며 꼭 잡은 손엔 행복만이 가득 베어 나왔다. 조금은 이른 4월! 아직까지 완연한 봄이 오는 걸 시기하는지 가기 싫은 찬바람은 미적미적거리다 수줍은 새신부의 빠알간 볼을 차갑게 스치며 조잘조잘 아쉬운 듯 다가오는 봄의 찬란함을 이야기한다.

밀레니엄이 다가오던 1999년 제주의 어느 이른 봄. 우리는 그렇게 신혼여행을 보내게 되었다. 성산일출봉, 용머리 바위, 일주도로, 한라산과 오름과 백록담... 우리의 제주에서의 첫 날은 붉은 와인과 노란 유채꽃과 복숭아 빛. 그녀에게 또 우리에게 추억의 앨범을 채우는 아름다운 날이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하늘의 축복인 우리 아이가 태어났다. 불안에 힘들어하면서 힘을 주다가 지쳐가던 아내는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힘을 주었고 조금만 더를 외치던 산부인과 의사에게 축하를 받으며 예쁜 공주님입니다 하는 소리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이 기뻐다.

의사는 아빠는 얼른 준비됐으면 들어오라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분만실로 급히 들어갔다. 탯줄을 자르던 나의 손은 가늘게 떨렸고, 그 때 나는 다짐했었다. 아이와 당신을 위해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갈거라고... 아이에게 믿음직한 아빠, 아내에게는 사랑스러운 남편으로 살겠다고 약속했다.

백일이 지난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을 만지며 눈을 맞추니 동그란 눈을 뜨고 웅얼거리던 아이가 까르르 웃는다. 기쁨의 눈물인지 놀라움의 눈물인지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내리는게

느껴졌지만 너무 좋아 껄껄 웃는 나를 보면서 아내는 팔푼이라고, 딸바보라고 눈을 흘기며 웃었다. 아이도 웃고 나도 웃고 아내도 웃었다.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딸아이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 코로나라는 신종 질병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흑사병처럼 훑으며 속절없이 생명들이 쓰러져 갔다.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길 기다린지 3년여... 나의 회사도 직원도 모두 없어졌고, 내게 남아있는 건 맨주먹 뿐이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코로나를 견디며 직원은 떠나고 거래처는 끊겼고 하루하루가 힘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생활비가 절실했던 난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보다가 알바 광고를 보고 바로 연락을 하였다. 평범한 심부름센터 같은 곳이었다. 일을 시작하기 전 아내는 조그만 개인 사무실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가정의 경제권이 아내에게 의지하게 되어 많이 미안하고 또 책임감이 더 느껴졌다.

아내는 나에게 건강부터 챙기고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집을 나서며 바라본 아내는 피곤해 보였고 전보다 더 몸무게가 빠진 듯 옷이 헐렁하게 보였다. 미안하고 미안한 이 마음은 자격지심일 거야... 스스로를 위로했다.

버스를 타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지갑 한쪽에서 보게 된 2만원... 버스카드와 5천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만원짜리 두 장이 더 보였다. 가슴이 쩡해지면서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았다. 무심한 구름은 바람에 밀려서인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띠리리리~ 휴대폰이 갑자기 시끄럽게 울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의 000입니다. 처음엔 전화를 잘못된 줄 알았지만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었고 경찰서로 0월 0일에 출두하라는 내용이었다. 가슴이 내려앉고 아이와 아내가 보고 싶어졌다. 결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며 내가 한 일이 범죄라는 것과 그 결과가 매우 안 좋을거라는 것을 직감적이고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다.

결국 지금의 나는 00교도소의 차디찬 바닥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지난 날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행동에 가슴을 치며 울고 또 울었다.

접견을 온 아내는 한마디도 못하고 내내 울다가 마지막에 “몸 건강해야 돼. 우린 걱정하지 말고...” 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해요. 속에서 맴돌던 말이 입안에서 다시 삼켜지고 말았다.

완벽한 혼자….

재잘대던 딸아이의 수다를 들으며 된장찌개 하나는 당신이 세계 최고라며 엄지척을 했던 일이 문득 생각나니 다시 또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며칠 후 다시 접견실에서 마주한 아내는 걱정말고 씩씩하라고 이후에 일은 내가 책임질테니 마음 굳게 먹으라고 당부에 당부를 했다. 뒤돌아 가는 아내는 결국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을 난 보고 말았다.

어둠속에 차가운 바닥에 혼자 남겨진 나에게 아내는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다. 괜찮다고,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그리고 난 당신 뿐이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었다. 나의 아내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나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어 나는 비로소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게 가장 고마운 사람은 바로 나의 반쪽, 나의 아내인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작품평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업체가 문을 닫고 직원도 다 내보내고……. 맨주먹만 남았을 때 인터넷 구인·구직 광고를 보다가 심부름센터 같은 곳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게 보이스피싱 단체의 일원이 되는 것임을 어찌 알았을까요. 잘 모르고 해도 범죄는 범죄고 벌은 벌인 것이죠. 다행히 아내가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기다려주겠다고 했으니 힘을 내십시오. 누구나 실수는 한다고,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한 그분은 천사입니다. 그래요, 부부의 사랑만 변치 않는다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새출발 지점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사랑할 테지요.

우연과 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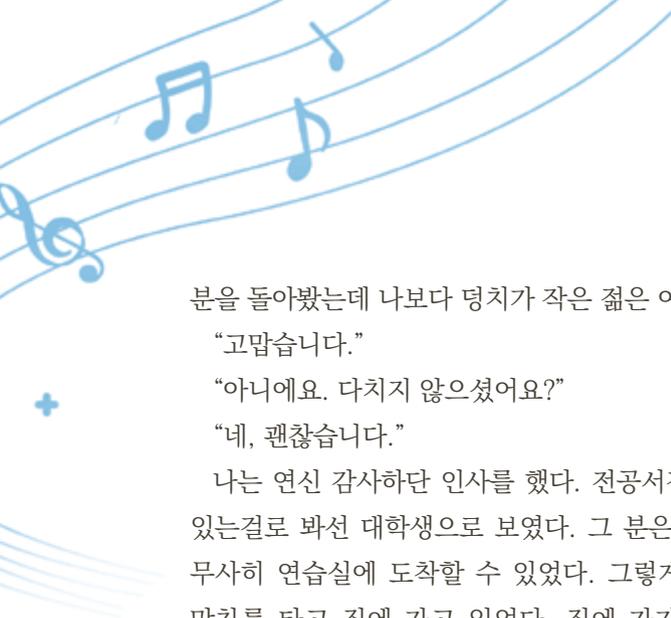


살아가면서 같은 일을 두 번 겪는게 흔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다. 같은 상황에서 입장이 달랐던 일이었다.

내 나이 18살, 그 또래 누구나 한창 꿈꾸고 있을 시기, 난 음악을 꿈꾸고 있었다. 16살 때부터 악기(일렉기타)를 2년간 혼자 공부하며, 연습하다 동호회를 통해 밴드라는걸 알게 되었고, 뜻이 맞는 비슷한 또래들과 밴드를 결성해 언젠가 있을 첫 무대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그 시기부터 신촌, 홍대를 들락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자주 갔던 곳이 홍대였는데, 연습실과 공연장들이 주로 밀집된 곳이라 매주 빠뜨리지 않고 늘 방문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어김없이 연습하러 악기를 매고 연습실에 가는 길이었다.

그 당시 학생이었던지라 주로 전철을 이용했고, 집에서 홍대까지 가기 위해선 전철을 한번 갈아타야 했다. 그때는 지금처럼 승강장 곳곳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던 때가 아니라서 발 빠짐 사고가 심심찮게 있어, 조금 위험하기도 했었다. 연습하러 갔던 그 날, 조금 늦을거 같아 갈아타러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었고, 승강장으로 가는 계단을 완전히 내려가자 이미 전철은 도착해 문이 열리고 있었다. 이걸 놓치면 연습시간에 늦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려 급하게 뛰어가다 승강장과 전철 틈 사이로 오른쪽 다리가 쭉~하고 빠져 버렸다. 마치 뭔가가 빨아들이듯 순식간에 빠져 버렸고 나는 어떻게든 빠져 나오려고 버둥거리고 있었다. 무거운 악기를 들쳐매고 있어서 나오는게 쉽지 않았다. 하필 전철 안에 사람도 거의 없어서 더 문제였다.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들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팔을 잡아 당겨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날 끄집어내 준 그 분과 겨우겨우 전철을 탔다. 정신없이 탔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그



분을 돌아봤는데 나보다 덩치가 작은 젊은 여자분이셨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나는 연신 감사하단 인사를 했다. 전공서적으로 보이는 책을 안고 있었고, 작은 가방을 매고 있는걸로 봐선 대학생으로 보였다. 그 분은 내가 내리기 바로 전 전철역에서 내렸고, 난 그날 무사히 연습실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보름정도 지났을 무렵, 늦게까지 연습을 마치고 막차를 타고 집에 가고 있었다. 집에 가기까지 전철을 한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시간을 확인하며, 중간에 끊기지 않길 빌고 있었다. 환승지점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마자 열심히 환승하러 뛰어갔다. 이제는 환승 승강장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계단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환승전철이 도착해 문이 열리는 것을 보며, 역시나 시간을 맞추지 못할거란 생각이 들었다. 근데, 전철문이 열리자 문 앞에 서있던 여자분이 전철 안으로 발을 내딛다가 전철과 승강장 사이 틈으로 오른쪽 다리가 쭉~ 하고 빠지는게 아닌가. 그 분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고, 늦은시간이라 객차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그걸 본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가 그분의 팔을 잡아 끄집어 냈고, 문이 닫히기 전에 가까스로 같이 마지막 전철을 탔다. 그 분은 연신 감사하다며 내게 인사를 했고,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서 초콜릿을 꺼내 주셨다. 정말 괜찮다며 거절했지만 계속 거절 하는것도 예의는 아니라서 마지못해 받았다. 사실 막차였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그 분께 감사하단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참으로 위험한 상황이 아니던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것 때문에 너무 미안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와 아무런 관련없는 타인에게 아무 조건 없는 도움을 받는 일이 얼마나 될까? 가끔 TV뉴스 등에서 우연히 여러 사람들이 어려운 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아무렇지 않게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아무리 흥흥한 세상이라 일컬어지더라도, 그러한 우연성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게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조건없는 우연을 주고 받는 세상이 지속되기를 기대해본다.

작품평

전철에 스크린도어가 없던 시절, 연주자가 될 꿈에 전자기타를 지고 다녔다고요. 승강장과 전철 틈 사이에 발이 빠져 찢절매고 있을 때 그대의 팔을 잡아당겨 구해준 이가 있었습니다. 덩치가 작은 젊은 여자분은 거의 생명의 은인이었군요. 보름쯤 후 마지막 전철이라 황급히 타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여자분이 같은 상황에 처해 찢절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경험을 했던지라 썩새게 팔을 잡아 끄집어내 구해주었습니다. 타인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돕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다 평범한 우리 이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람을 구해주는 정신이 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살신성인(殺身成仁)을 실천하셨군요.

나의 히어로 누나

이준경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3년에 이곳에 들어왔으니, 여기서 한 해를 넘겼네요. 이곳은 참 신기한 곳입니다. 괴로운 거야 당연한 거지만, 가족들이랑 떨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가족 걱정하며 눈물까지 흘리게 될 정도니까요.

가족 걱정 중에서도 저는 항상 어머니를 걱정하기에, 이번엔 누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이 저의 어머니와 누나니까요.

제 누나는 어릴 때는 저를 싫어했었습니다. 어렸던 저인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나서 누나랑 대화하며, 그게 내 오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부모님 사랑을 한순간에 받아서 그랬을 수도 있다면서, 껌연쩍게 얘기하더군요, 그럴 만도 합니다. 가뜰이나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힘든데, 흑 같은 동생이 달려 있으니깐요. 그때는 누나도 어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누나는 집에서 지원을 하나도 안 해줬는데, 남들이 햄버거를 뿌리든, 빵을 뿌리든, 그런 거 하나 없이 항상 반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전교 회장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육성회비를 못 내서 눈치받으면서도 오로지 공부와 특유의 사교성만으로 그걸 다 해냈습니다.

그런 누나가 교장실에 불러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왜소하고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괴롭힘도 당했었는데, 나중에 축구를 잘한다는 이유로 나를 교우관계는 원만하긴 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3학년 때였나, 비 오는 날, 운동장에서 누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처음 보는 형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괴롭힘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비에 젖짝 젖었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디선가 큰 고함과 함께 누군가가 우산을 들고 세 명의 형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였습니다. 당연히 누나가 세 명을 당해 낼 순 없었지만, 그때 누나는 제게 히어로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악당 셋과 싸우는 히어로.

결국 누나도 흠씬 두들겨 맞았지만, 누나는 전교 회장이라는 이유로 교장실까지 불려가서 혼났습니다. 제가 싫어도 누나는 누나이었나 봐요. 저를 위해 남자 셋과 싸우기까지 했으니까요.

누나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히어로, 우리 집의 히어로, 어떤 역경도 다 뚫고 헤쳐 나가는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사람.

누나는 학원 한 번 보내주지 못하는 집안 환경 따위, 핑계에 불과하다는 듯, 명문대에 보란 듯이 합격했습니다. 학원 강의를 몰래 듣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자는 시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누나는 성실 그 자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이, 아무 흠결 없이 열심히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누나에게 저란 존재는 항상 짐이었던 거 같습니다. 누나는 자주 통명스럽게 저를 대하긴 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용돈도 주고, 운전면허 판다니까 운전면허 학원 비용도 주고, 공무원 도전한다니까 공무원 강의 비용도 줬습니다. 심지어 집이 망해서 우리 가족 모두 힘들 때도, 제가 멘탈이 약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때도 누나는 그 강인한 힘으로 버티며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저도 겨우 버텼고요.

영화나 만화를 보면, 히어로에겐 빌런이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배트맨에게 조커가 있는 것처럼, 히어로를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누나에게 빌런입니다. 누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악당, 빌런.

누나는 제 사건을 알게 되고, 그 충격 속에서도 빛을 내가며 법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누나도 두 아이가 있는 가정의 엄마라, 풍족하지 못함에도 빛을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를 믿고 조카의 육아를 제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누나가 바빠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라면 저 같은 동생은 못 믿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나는 저를 믿어줬고, 저는 덕분에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아기가 저의 인생, 정신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이 느낌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인생을 다르게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누나는 저를 항상 도와주는데, 저는 누나에게 피해만 끼칩니다. 매형까지 알게 되면서, 누나에게 큰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주고, 죄는 제가 지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누나가 저의 누나라는 이유로 저의 죄를 같이 짊어지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무리해서 빚을 내며 피해자의 피해도 보상하려고 합니다. 정말, 저는 누나의 인생을 망치는 존재입니다.

너무, 너무, 미안해요, 누나.

어머니께도 너무 죄송하지만, 누나에게도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와서 가족에 대해 깊게 생각하며, 제 죄에 대해 더욱더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굳은 다짐을 합니다.

우리 집의 히어로, 나의 히어로 누나에게 다 갚고 싶습니다. 이제는 제가 누나에게 히어로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정신이 아찔해지기도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모두에게 속죄하며 살 것입니다.

누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내가 다 갚을게.
모든 걸, 그 이상으로.
미안해, 너무.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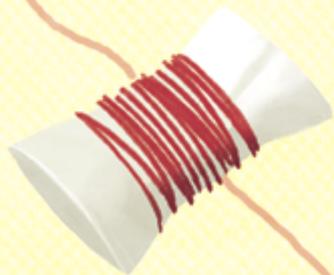


작품평

남동생이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생각이 들면 누나는 동생이 얼마나 알밌겠습니까. 그대가 초등학교 2, 3학년이었을 때 평소에 쌀쌀맞게 대하던 누나가 세 명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그대를 구하려고 우산을 휘두르며 싸워준 것을 계기로 누나를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 봅니다. 누나는 가난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동생의 용돈, 운전학원 비용, 공무원 강좌 비용까지 대주었으니 히어로임에 틀림없습니다. 부모 역할까지 다 해주었는데 영어의 몸이 됨으로써 또다시 누나 속을 썩인 그대는 철없는 동생이지만 반성을 제대로 하고 있으니 다행입니다.

누나의 손길

김동철



가족구성원의 소중함이야 여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으뜸가는 사향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누나'라는 존재는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유일한 혈육인 까닭으로 그 각별함이 큼니다.

가정의 불화로 일찍이 이혼을 하게된 어머니는 집을 떠나셨고 거친 바닷일을 업으로 삼아오시던 아버지마저 풍랑에 실종사하게 되는 불운으로, 매물차게 어린 두남매만 남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도 채 마치지 못했던 누나는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동네 누나들을 따라 서울 청계천변 봉제공장에 취직을 하여 일찍이 생계전선에 뛰어 들게 되었고 5살의 어린 저는 가족이 파탄이 되는 아픔을 체감 할 겨를도 없이 지방의 소규모 민간 보육시설에 수용이 되어 자랐습니다. 시설의 열악한 여건으로 당시에는 죽음에 이룰수 있는 위중한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전문병원에 격리되어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였습니다.

누나는 햇볕 한점 들지 않는 닭장같은 지하 봉제공장에서 낮과 밤을 가리지않고 여리고 작은손을 분주히 움직여 일한 품값으로 누나는 병중에 있는 동생을 위하여 비타민과 칼슘제를 비롯한 각종영양제를 구매하여 내게 보내 주었습니다.



하나뿐인 남동생의 건강회복을 위해 다달이 보내어준 용돈과 학용품 등 정성담긴 소품 꾸러미에 비교적 빨리 병을 이겨내고 완쾌할 수 있었던 듯 합니다.

누군가의 보살핌과 손길이 필요한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홀로 보육원에서 외롭게 성장하여 불혹의 나이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재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려 힘써 주었던 누나의 지지와 응원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제도의 지원이 전무하였던 그시절, 자립준비청년으로 냉혹한 사회에 덩그러니 내던져 졌을 때, 누나는 아무런 조건없이 신도림동 자신가족의 반지하 살림집 방한칸을 내어 주었습니다.

홀로 걸어온 고단한 삶으로 옷깃만 스쳐도 불꽃이 일 것 같았던 메마르고 건조해진 나의 마음은 누나와 매형, 어린조카들과 함께 했던 생활의 경험으로 ‘가족’이라는 두터운 정과 따뜻한 온기를 실감해 볼수 있었던 소중한 추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누나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제철과일인 복숭아를 먹기 좋게 손질한 과육은 나와 가족에게 내어주고, 정작 자신은 씨앗 주위에 얼마 남지 않은 시큼한 자투리 과육만을 먹었습니다.

손수 개발 했다면 새우볶음김밥으로 맛있는 도시락을 챙기어 주었던 일과 예전 기술을 이용해 떨어진 바짓가랑이를 감쪽같이 꼬메어 주었던 일 등, 당연시 하게 여기어 왔던 누나의 손길이 닿았던 무수한 수고로움들에 ‘헌신’과 ‘희생’이 깃들어 있음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제 앞가림도 하기 힘든 미성년의 어린누이가 역시나 코흘리개 소년에 불과한 동생인 나를 염려하고 돌보아야 하였었던 애처롭고 가슴아픈 유년의 과거가 회상이 되어 코끝이 시려와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철없던 청춘날 한때, 눈덩이처럼 불어난 카드빚의 수렁에 빠져 곤경에 처했을 때, 누나가 찾아와 당장에 밀린 방세와 생활비에 보태어 쓰라며 던지시 건네어준 몇십만원을 한손으로 흠어 뿌리치며 “이까짓 푼돈으로는 산불같은 빚더미를 침을 뱉어 끄라는 격이야!”라고 화를 내며 큰소리 치고 말았던 적이 있습니다.

빛독촉의 압박감과 자존심에 되려 날을 세워 내뱉어 비수어린 말로 가난한 누이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그때의 말 한마디가 지울수 없는 뼈아픈 후회로 남아 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라는 테마 주제로 누나와의 추억들을 새록새록 회상 해보며 글을 쓰게 되는 과정에서 새삼 누나라는 존재자체가 나에게 ‘엄마’와 같은 커다란 ‘행운’이고 ‘선물’이었다는 분명한 인식을 확신하게 됩니다. 살아오는 동안 누나로부터 받아왔던 격려와 사랑을 십분의 일도 채 값지 못한 듯합니다. 더욱이 하나뿐인 남동생이 순간의 잘못으로 죄를 짓고 옥중에 갇히게 되어 척박한 삶을 견디어 내느라 명울뿐인 누나의 가슴에 아픔을 전가하게 되어, 너무도 미안하고 마음이 아픡니다.

비록 현재는 영어의 몸으로 누나와 나눌수 있는 기쁨들이 없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지만, 다시 사회로 되돌아 가게 되는 그날에는 조금 더 성장한 변화된 모습으로, 든든한 아빠, 오빠와 같은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물질적 풍요의 커다란 선물은 어렵겠지만, 누이의 티없이 맑은 미소와 감탄을 자아내게 할수 있는, 제철과일의 달콤함과 제철화초들의 화사함을 계절에 따라 선물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함께 나눌수 있는 소소한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누나와의 관계를 더욱 충만히 누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는 법!” 이라며 희망의 응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누나에게 생전에 처음 “진정어린 감사와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며 글을 올립니다.



작품평

부모가 일찍 이혼해 어머니는 남매를 남겨놓고 집을 떠났고 어부인 아버지는 실종, 아아 너무 일찍 고아가 되었군요. 누나가 청계천변 봉제공장에서 일하면서 보육원의 동생에게 비타민과 칼슘제를 비롯한 영양제를 보내주었으니 그 은혜는 정말 각골난망(刻骨難忘)입니다. 그대가 성인이 되어 카드빚의 수렁에 빠지자 돈을 구해온 누나 앞에서 몇십 만원을 흘뿌리면서 “이까지 푼돈으로는 산불 같은 빚더미를 침을 뱉어 끄라는 격이야!” 하고 화를 냈다니, 아아 정말 너무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누나가 베푼 사랑을 뼈에 새기고 반성하고 있으니 누나는 잔잔히 웃으며 께안아 줄 겁니다. 누나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창문 밖 풍경 (나의 행복 정원)

최철환



이곳에 있는 나에게 삶에 에너지를 주고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창밖에 있는 작은공간이 있다. 이 소중한 공간에 적당한 이름을 지어 주는데는 여러 날이 걸렸다. 처음에는 각종 새들, 고양이 등 동물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동물정원’이라 할까하다가 가을 어느날 참외덩쿨 사이에 탐스러운 노란참외가 크고 있는 것을 본 후 ‘나의 작은 정원’으로 임시 정했는데 너무 멋진 것 같아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어느날 새벽부터 부산한 이 작은 공간이 간혀있는 나에게 살아 존재하는 것들의 생생함이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와 ‘나의 행복 정원’으로 최종 그이름을 지었다.

나는 오늘도 좁고 다소간 답답한 나의 작은 방에서 하루 해를 맞는다. 내 정면 시야에 있는 직사각 격자창문을 통해 바깥세상을 바라보며 소통을 시작한다. 바깥세상이라 해보았자 바로 5m 앞에 격자창의 절반이상을 가리는 거대한 시멘트로 만들어진 담이 있고 그 담벽과 내 작은방 외벽사이 좌우로 길게 펼쳐져 있는 풀밭 공간이 바로 이 정원이다. 바로 이 작은정원, 즉 ‘나의 행복 정원’(MHG : My Happy Garden)에는 새벽 동틀녘부터 저녁 해질때까지 하늘에서 땅에서 많은 손님들 찾아와 북새통을 이룬다. 이러한 작은 손님들의 부산한 움직임이 잠시 둔해졌던 나의 오감을 깨워주어 내가 살아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준다.

나의 행복 정원의 첫 번째 손님은 고양이 가족이다. 총 6마리인데 5마리는 푸마색의 검은 고양이들이고 한 마리는 특이하게도 흰색, 검은색 조합의 알록달록한 점박이이다. 이중 검정색 고양이 두 마리와 점박이 고양이에겐 이름을 지어주고 이들을 부를 때 그 이름들을 사용하는데 신기한 것은 자기 이름들이 불려질 때 꼭 바로 그놈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크고 잘생긴

대장 고양이는 ‘메로’로 그리고 알롱이 달롱이 점박이는 마치 백설기 떡을 꼭 닮아 ‘백설기’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방 덩치 민경의 주먹만한 아기 고양이가 처음 데뷔를 하여 큰 즐거움을 선사했는데 곧 이름을 지어야 하겠다. 이들은 새벽에 행복정원으로 출근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이곳에 집이 따로 없어 담벽 밑에서 밤에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자다가 날이 밝아오면 활동을 개시하는 것 같다.

이 야옹이 가족들의 새벽활동에는 일정한 루틴이 있는데 비가오나 눈이오나 이를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 풀밭으로 되어있는 정원에는 시멘트 맨홀이 있는데 그 옆에서 바짝 긴장된 자세로 웅크리고 앉아 짧게는 30분, 길게는 두시간이나 넘게 꼼짝않고 뭔가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혹시나 고양이의 별미인 쥐를 잡으려는 것인가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한번도 쥐를 포획하는 장면은 본적이 없다. 이들의 모습은 흡사 강가에서 고기 한 마리 못잡고 세월을 낚았다는 고대 중국의 강태공의 모습이다. 고양이들은 해가뜨면 다른 일을 하러가는데 ‘나의 행복 정원’에서 때지어 퇴장을 한다. 고양이 가족들의 새벽 부대공연이 끝나는 것이다.

다음 차례의 행복 정원 손님은 비둘기 군단이다. 비둘기들은 수십마리에서 많게는 백여마리 넘게 어디에선가 날아오는데 자세히 보면形形色색으로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비둘기는 단 한 마리도 없다. 이들도 나름 엄격한 질서가 있다. 먼저 담벽 상단에 척후병같이 날렵한 비둘기 한두 마리가 날아와 앉은 후 망을 보며 ‘행복 정원’의 품세를 살핀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신호를 주고받는지 비둘기 군단 본대가 떼를지어 땅으로 순식간에 내려 앉는다.

이들은 부지런히 날개짓하며 사뿐이 땅에 착륙한 후 동그란 작은 머리를 상하로 움직이며 종종걸음으로 이곳저곳을 누비다가 먹을 것을 발견하면 작은 부리로 찍어서 공중으로 토스하면서 먹어댄다. 이 모습은 서커스 단원의 손빠른 저글링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밤새 주린 배를 풍부한 조찬으로 채우는 것인데 대장 비둘기 신호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가끔 운이 좋은날은 그중 사람 친화적인 비둘기 한두마리가 방 바로 옆 빨래줄에 사뿐이 앉아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며 방안에 있는 나를 신기한 듯 쳐다보기도 한다. 이는 단안시를 극복하기 위해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것인데 마치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궁금해하는 가우똥 몸짓처럼 보이니 나를 웃기게 한다. 이 비둘기 군단이 ‘나의 행복 정원’무대에서 아침향연을

끝내고 퇴장하면 잠시 평화로운 정적의 시간이 찾아온다. 이곳 비둘기들은 이 정원에서 포식해서 그런지 영양상태가 좋고 토실토실 살이 잔뜩 쩌었다.

해가 중천에 뜨면 또다시 ‘행복 정원’은 여러 손님 맞이로 활기를 띠게 된다. 이번에는 까치손님, 까마귀손님이 여지없이 나타나는데 이중 까치는 행복 정원의 멋스러운 신사손님이다. 흰색, 검은색 깃털의 조화롭게 균형잡힌 옷에 긴 꼬리는 마치 연회에 초대받은 연미복 입은 젠틀맨을 생각나게 한다. 비둘기가 우아하고 아담한 여성의 모습이라면 이 신사같은 까치는 패기있고 힘있는 남성의 모습이 엿보인다. 비둘기와는 달리 까치는 두세마리가 내려와 씩씩하게 정원을 활보하다 먹을 것을 힘있게 쪼아먹고 멋있게 품을 잡다가 나의 정원을 까마귀들에게 인계하고 자신들의 다음 행선지로 날아가 버린다.

까마귀들은 사실 좀 음산한 면이 있다. 까마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흉조로 알려져 있지만 ‘나의 행복 정원’에는 이와 상관없이 엄연한 나의 반가운 손님이다. 이들이 퇴장하고 나면 이제 작은 손님, 귀염둥이 참새 떼가 날아와 짹짹거리며 그들만의 축제를 한동안 즐기다가 날아간다.

오늘도 ‘나의 행복 정원’의 이 작은 공간은 하늘에서 땅에서 분주히 드나드는 반가운 손님들에게 공연무대, 놀이터를 제공해주고 나에게서는 마음 한가득 행복과 활기를 가져다 주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니 또 하루가 지나간다. 또 내일도 ‘나의 행복 정원’은 변함없이 하늘 손님, 땅의 손님 말없이 환영하고 나의 소소한 행복은 계속하여 진행될 것이다.



작품평

철창 밖의 작은 공간이 집이고 놀이터인 애들이 있나 봅니다. 새들도 드나들고 고양이도 여섯 마리 드나들어 ‘동물 정원’이라 이름을 붙이려다가 노란 참외가 크는 것을 보고 ‘나의 작은 정원’으로 이름을 붙일까 생각했다고요. 결국 ‘나의 행복 정원’이 되었는데 저도 이 이름이 마음에 듭니다. 떼를 지어 날아온 비둘기들에 대한 묘사는 소설의 한 대목 같습니다. 까치와 까마귀, 참새 떼가 차례로 와서 노는 것을 보고 세심히 관찰하는 관찰력도 놀랍지만 문장력이 뛰어납니다. 앞으로 수필을 계속 써보고 수필 문예지에 투고해보기 바랍니다.

고마운 사람

박자호



선생님의 첫인상은 매우 강렬하게 다가왔었다. 작은 체구였지만 당당했고, 인자한 미소에 형형한 눈빛이었다. 마주 잡은 손에서 손으로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의 물길기 터져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교정기관에서의 지루한 일상의 시간을 깨자고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스스로가 듣기에도 비장함이 묻어나온 목소리였다. “반갑습니다. 지강입니다.” 중저음의 목소리, 흔히 말하는 동굴보이스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천주교 성가대에 몸을 담고 계셨다. 자연스럽게 다듬어진 것이었다. 무엇이든 한 번에, 짧은 시간에 얻어지는 것은 없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어떤 하나를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은 여간의 노력으로는 힘든 일이다.

서예는 흑과 백의 놀음이라고 했다.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조합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그러한 편협한 생각들은 봄눈 녹듯 녹아 딱딱하게 굳어져 풀 한 포기 자랄 곳 없을 것 같은 내 마음 한 곳으로 스며들었다. 선긋기와 점찍기만 꼬박 석 달이었다. 처음 서예에 입문했을 때 선배들이 입을 모아 말했었다. “석 달만 넘기면 돼.” 당장은 그 말의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석 달이 지나고서야 깨닫게 되었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멋지게 쓸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내 맘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의기양양했던 생각들은 어처구니없는 자만이였다. 오기가 생겼다. 포기하지 않았다. 지루할 법도 했지만, 얼마나 걸리든 좋다고 생각했다. 내 인생에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적이 있었을까 자신에게 물었다. 대답은 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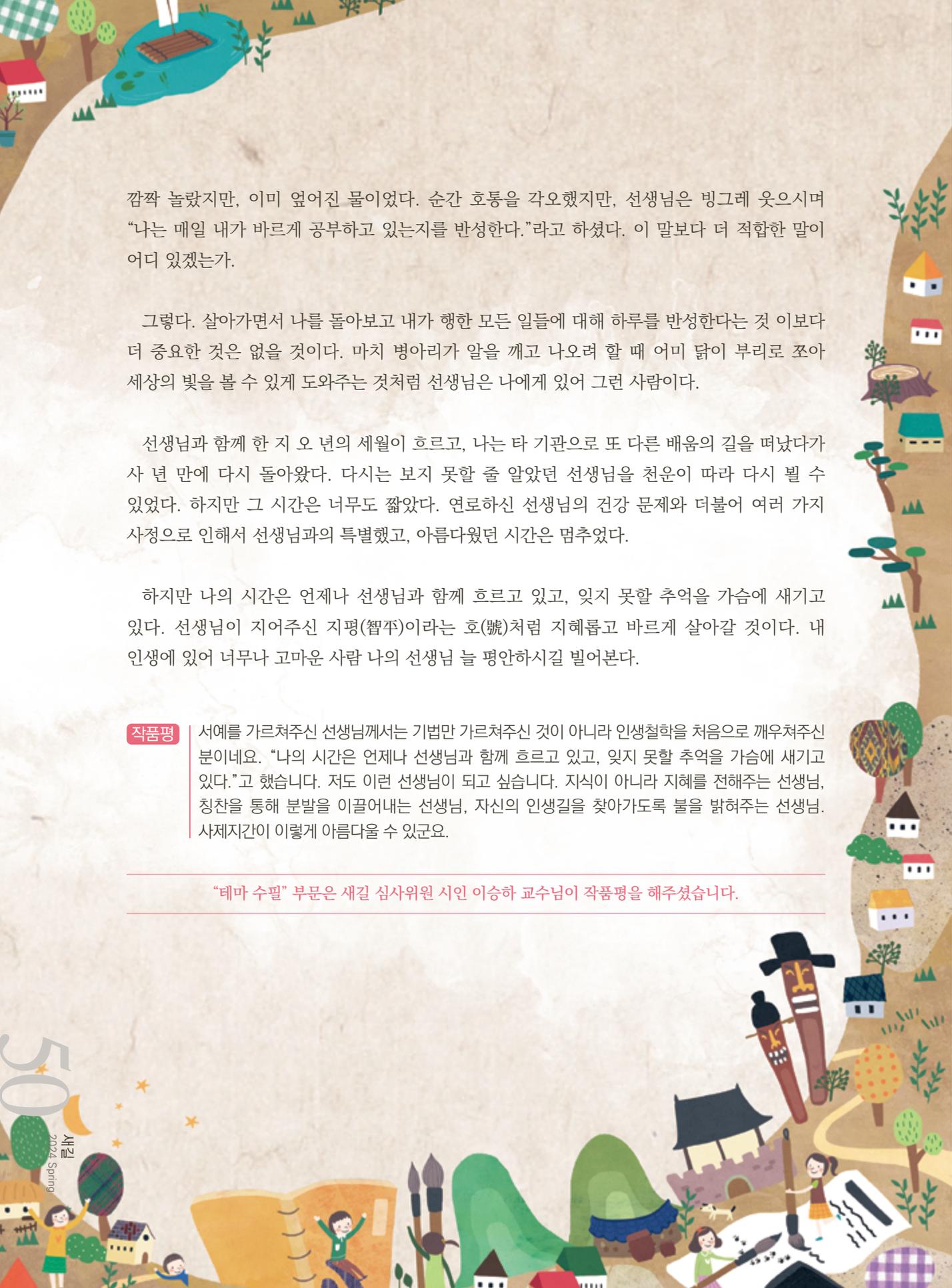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수업이었다. 선생님께서 써 주신 체본을 보고 다음 수업 때까지 연습한 것을 내었다. 한번 거른 적 없이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봄이며 여름이며 가을을 거쳐 찬바람 세찬 겨울에도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연습했다.

그렇게 차곡차곡 돌탑 쌓듯이 소중한 시간은 흘러갔다. 숙제 검사를 받을 때였다. “공간 감각 능력은 타고난 것 같구나.”하고 선생님은 깜짝 놀랄 말을 했다.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얼굴이 벌겍게 달아올랐다. 부끄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칭찬받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생소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물에 물붓기처럼 막막했었던 불안과 초조함이 봄날의 민들레 흩씨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다. 화선지에 삐뚤 삐뚤거리던 글자들도 점차 조화를 이루기 시작했다.

서예는 인생과도 같았다. 한번 그어진 획은 수정이 불가하다. 삶도 그랬다. 내가 선택해서 일어난 일들은 오롯이 나의 몫이었고, 내가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한 획을 긋고 또 한 획을 그어 글자가 되고, 비록 그 글자가 작거나 크거나 조금 기울었다 해도 다음 글자가 앞선 글자를 받쳐주고 보완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써 내려간 글자들은 문장을 만들고 화선지에 채워진 글자들은 서로 장법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다. 매번 웃으며 지내자는 각오가 무색하게 어떤 날은 기분이 우울한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겠다는 패기가 흘러넘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하루들이 모여 나의 삶을 이루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서여기인」이라는 말이 있다. 글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글씨를 쓰면 비록 기교가 뛰어나지도 않고, 숙련도가 부족한 나라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멋이 있고, 철학이 있는 글씨가 되었다.

선생님은 서예를 함에 있어서 세 가지의 예를 들었다. 첫째, 대가에게 배우는 것. 둘째, 법첩(책)을 보고 공부하는 것. 셋째, 바르게 공부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들었다. “선생님 바르게 공부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내 입에서 뱉어져 나왔을 때



깜짝 놀랐지만, 이미 엮어진 물이었다. 순간 호통을 각오했지만,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나는 매일 내가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반성한다.”라고 하셨다. 이 말보다 더 적합한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다. 살아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 하루를 반성한다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마치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 할 때 어미 닭이 부리로 쪼아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처럼 선생님은 나에게 있어 그런 사람이다.

선생님과 함께 한 지 오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는 타 기관으로 또 다른 배움의 길을 떠났다가 사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선생님을 천운이 따라 다시 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도 짧았다. 연로하신 선생님의 건강 문제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선생님과 특별했고, 아름다웠던 시간은 멈추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은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흐르고 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선생님이 지어주신 지평(智平)이라는 호(號)처럼 지혜롭고 바르게 살아갈 것이다. 내 인생에 있어 너무나 고마운 사람 나의 선생님 늘 평안하시길 빌어본다.

작품평

서예를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는 기법만 가르쳐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철학을 처음으로 깨우쳐주신 분이네요. “나의 시간은 언제나 선생님과 함께 흐르고 있고,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전해주는 선생님, 칭찬을 통해 분발을 이끌어내는 선생님, 자신의 인생길을 찾아가도록 불을 밝혀주는 선생님. 사제시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군요.

“테마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엄마와 해바라기

김수일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예쁘게 웃으시던 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열여섯 살에 산골 마을로 시집와 6남매를 낳은 올 엄마는 대장부 못지않게 성격이 매우 강직하고 엄격했다. 그래서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는 날엔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고 여지없이 불호령이 떨어지기 일쑤였다. 그런 성격 탓인지 술 중독에 빠져버린 아파와 6남매를 거느리고도 고된 농사일과 빠듯한 살림살이에 시달리신 엄마에게는 웃는 모습이라곤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허구한 날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살림살이를 박살 내고 갖은 욕설을 퍼붓는 아파를 대하면서도 엄마는 끝내 대꾸 한번 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아파는 그날도 여지없이 집 안 구석구석을 누벼가며 이유 없이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부수어 가며 생난리를 쳤다. 날이 갈수록 포악해진 아파의 행동에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해바라기 텃밭으로 숨어들었는데 마침 그곳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서럽게 울고 있는 올 엄마가 있었다. 열두 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내가 본 엄마 눈가에선 평생 흘리고도 남을 폭포수처럼 거센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엄마 울지마, 엄마 울지 말아요...” 엄마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고사리손으로 얼룩진 눈물을 어루만지는데 나도 따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눈물 보여서...” 나를 품 안으로 껴안아 끌어안은 엄마는 서러움이 채가지지 않았는지 한동안 어깨를 움짚거리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고등학교 입학식 날, 그토록 엄마 가슴에 상처만 안겨주시던 아빠가 돌아가시고 집안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진정 우리 가족이 바라던 평화는 결코 아니었다. 일찍이 나보다 열다섯 살이나 많은 큰누나와 둘째 누나가 연이어 시집을 가버린 데다 두 살 터울인 두 형과 나도 직장 문제로 고심하던 막내 누나를 따라 결국 시내로 내려와 살게 되었다. 그 뒤로 시골에 홀로 남겨진 엄마는 세상의 외로움을 홀로 떠안은 채 아빠의 빈자리를 묵묵히 메꾸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툼툼이 모아둔 용돈을 털어 엄마가 좋아하시는 전병을 한 아름 사 들고 시골로 내려와 엄마를 뵈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아버렸다. 엄마를 못 뵈는 지 불과 서너 달 사이 엄마는 많이 변해 있었다. 윤기 흐르던 이마는 온데간데없이 온통 골 깊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몸은 나무젓가락처럼 몹시 야위어져 있었다. “엄마 죄송해요, 자주 찾아뵈지 못해서...” 주름진 엄마 손을 부여잡고 따갑게 눈시울을 적시는데 엄마는 나를 무덤덤한 표정으로 뵈는 척만 볼 뿐 예전처럼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아니 눈물을 흘리지 않은 게 아니라 눈물샘이 말라버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엄마, 올해는 해바라기 안 심으세요?” “해바라기? 그거 안 심은지 몇 년 됐는데 새삼스럽게 왜?”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져 버렸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엄마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던 해바라기 텃밭을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자 그동안 가슴 속에 맺혀있던 한을 모두 지워버리고 싶어 몇 해 동안 해바라기를 심지 않았는데 나는 여태 그런 줄도 모르고 작년까지 해바라기가 텃밭에 심겨 있는 줄로만 착각했다. 부끄럽고 죄송했다. 아니, 그동안 엄마한테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몹시 쓰리고 아팠다.

이듬해 봄이 되자 나는 엄마 몰래 텃밭에 들어가 해바라기씨를 여기저기 뿌렸다. 그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던 엄마는 해바라기가 줄지어 쑥쑥 자라 올라오자 당황하셨는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와 난데없이 해바라기꽃이 활짝 피었다며 연유를 캐물었다. 하지만 나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며 시치미를 뚝 떼고 엄마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텃밭에서 자기 키만큼 훌쩍 자란 해바라기를 바라보며 활짝 웃고 서 있는 엄마를 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솟구쳐 올라 웃음기 없던 엄마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있는 듯했다.

세상에 해바라기보다 씨앗을 많이 품고 활짝 웃는 꽃도 없을 것이다. 어찌면 울 엄마도 어린 나이에 시집과 자식을 낳고 살림을 꾸리느라 평생 해바라기처럼 활짝 웃으며 행복하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을지도 모른다. 그 일이 있고 세월이 훌쩍 흘러 지금에 와서야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십 년째 면회를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이유와 일찍이 치매를 앓고 계시면서도 끝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봐 엄마의 자리를 곳곳이 지켜왔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엄마 제가 너무 철이 없어 엄마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구순이 된 울 엄마는 오늘도 시골집 텃밭 앞을 서성이며 하루빨리 해바라기가 활짝 피어오르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다. ‘엄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제가 이다음에 해바라기 아주 많이 피워서 엄마 치매 꼭 낫게 해드릴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작품평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웃으시는 엄마의 모습을 도입 부분에 설정해 놓고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해바라기의 관계가 글의 시작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전개되고 있는 우수작입니다. 고된 농사일과 살림살이로 6남매를 키우신 엄마에게 해바라기는 위로의 대상이고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구순이 된 엄마가 치매를 앓고 있지만 해바라기처럼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자식의 고백이 잘 드러난 감동적인 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동수

저는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10년 가까운 시간을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매일 매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체력단련과 온몸이 고통스러운 훈련, 생사를 오가는 작전 중에서도 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일은 마음먹기 달렸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그 마음은 어떻게 먹는 건지 누구 하나 알려주는 사람없이 그저 어른들의 잔소리처럼만 생각하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처럼 너무나도 춥고, 아픈 순간을 겪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그 어른들의 잔소리입니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디어 내어 지금의 경험을 사회로 돌아가기 위한 마중물 삼아 새로운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뒤에는 항상 이뤄낸다, 승리한다, 해냈다 같은 말들이 오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냈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역경과 고난을 우리는 잘 극복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사랑하는 이를 그리워하는 마음, 사회에 대한 향수, 답답함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벽을 부수어 아파도 꼭 참고 이겨내 봅시다.

최근에 읽은 책에서 '만약 낮이 계속 이어지는 세상 속에 산다면 우리는 결코 별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고서 저는 우리는 지금 밤하늘에는 별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며 다시 낮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려 하지말고, 그 안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더욱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찍이 받아들일수록 부정적인 감정에 시달리지 않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좀더 의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가 녹아 있는 작은 목표가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그리고 사소한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는 그런 작은 목표를 세워 이루어 나가다보면 큰 목표를 결국에는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2년이 다되어가는 수용생활동안 수 많은 고통을 마주하였고, 아프고 힘든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아마 계속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이겨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다 보면 분명히 예전처럼 해맑게, 걱정없이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바람은 불지만 태풍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비는 내리지만 홍수는 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제게도 이 힘든 시간이 끝이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견디어 냅니다. 우리 모두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내봅시다.

이 글을 읽고 단 한 분만이라도 삶의 용기가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시들겠지만, 반드시 다시 핍니다. 걱정하면 지는 것이고, 설레이면 이기는 겁니다.

작품평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 뒤에는 “이루어낸다, 승리한다, 해냈다”는 서술어가 붙는다는 문맥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려준 글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생각을 믿으며 인생의 방향을 잘 제시한 내용이 공감이 됩니다. 훌륭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이루어가다 보면 큰 목표도 결국 이루어낸다는 확신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기”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슬픔을 기쁨과 행복으로

오창근

64년 전, 철부지 다섯 살 이었던 난 그 때 무척 슬펐다. 나에게 다정다감했던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난 그런 아버지를 남에게 강제로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분명 우리 아버지가 틀림없었는데 난생 처음 본 아이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라 하며 나를 밀치고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고, 아버지는 그 아이들을 온화한 사랑으로 포용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배신’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그 어렸던 내가, 그 때 ‘아! 이런 게 배신이란 것이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되었고 가슴이 아리도록 슬퍼왔던 그때였던 것이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커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본래 본처가 따로 있었으며 그 슬하에 아들과 딸자식들이 무려 여덟 명이나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욕정에 욕심을 더 내고는 많은 여자들 사이사이에서 기웃거리려 왔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충청도 어느 촌구석에 갔던 일이 있었는데, 그 때 찢어지게 어렵게 살고만 있던 그 시골집의 큰 딸에게 “서울에 취직 시켜주겠다.”고 꺾어 상경시켜 데려왔다.

아버지는 그 시골 처녀에게 취직은커녕 어느 허름한 집 골방에 가둬두고 방문을 자물쇠로 잠구어 가둬버렸다. 그리고는 인간사육을 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시골 처녀를 겁탈하고는 임신을 시켜 버렸다. 그 때 시골 처녀는 사춘기의 열일곱 살이었다.

그 이듬 해 처녀는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스무 살이나 많은 꼰대 남편이었다. 아버지의 본가에는 재산도 있어서 그 식구들은 배부르게 먹고 지냈지만, 아버지는 이상하게도 첩실이 된 젊은 어머니에겐 궁색하기 이를 데 없이 대했고,

마치 노예 마냥 갖은 행상도 다 시켜냈다. 그리고는 아버진 마치 기동서방 같이 길거리 행상을 하고 있는 애처로운 어머니를 지켜보다가, 어머니가 장사의 목적으로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아버지는 의처증이 발동해서 달려와 어머니를 마구 폭행해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치마폭에 어린 나를 감싸 안고 슬퍼 울어댔으나 어린 자식을 둔 어머니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서울 청량리 유곽촌 속에 끌어들였고, 숙박 손님들에게 호객행위를 시켰으며, 나중에 본격적인 포주노릇도 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는 그게 ‘여자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가수 이미자의 슬픈 노래들을 자주 부르셨는데 난 엄마 치마 밑에서 그 노래들을 들어오며 성장했다. 청량리 흥등가 유곽불빛은 화려했지만 슬픔이 많은 곳이기도 했다. 그런 칙칙한 골목 속에서 어머니의 슬픈 인생을 보면서 내가 어찌 정상적인 성인이 될 수가 있었을까?

동네 험악한 형들에게 못된 짓들을 배우고 아이들과 휩쓸려 다니며 썸박질을 해왔다. 그러다 나이가 들어 결혼은 하였지만 ‘아버지의 대물림 이었던가?’ 순고한 교육자 집안 막내딸을 나는 강제로 아내로 만들었고, 어렵게 결혼생활을 이어갔으나, 결국 16년 만에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다.

이혼의 주된 문제는, 내가 무학자였기에 지혜가 없었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슬기운으로만 대처해 나가려는 골목 선배들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이었다. 사춘기 외동아들을 아내에게 맡기고 고아가 된 인생으로 홀로 살아가는 나는 새 인생의 빛을 찾지 못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하는 일마다 무너지기만 했다. 자연스러울 정도로 교도소도 들락거리게 된 것이었다.

어두운 교도소에서 희미한 불빛이라도 찾으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성모마리아 느낌으로 보게 된 한 수녀님을 뵈게 되었는데, 그 분은 강순분 콘실리아 수녀님이라는 분이셨다. 강수녀님은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시어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고, 나는 수녀님을 어머니 같이 생각하기도 했다.

내 인생의 잘못은, 스승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오십이 다 된 나이에 처음부터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교도소에서 가르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노력한 끝에 초, 중, 고등학교 졸업 합격증을 받았고, 탄력을 받아 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에도 진학을 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글쓰기에 취미가 생겼고, 남에게 자랑할 문체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쓰는 글의 컨셉>으로 수십 편의 내 글이 각종 잡지에 실리는 영광도 있었다.

내 나이 널 모레 칠십이다. 내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죽기 전에 무엇을 하다 죽어야 할까? 내가 어찌 살다가 죽어야만 헤어진 아내와 아들이 날 좋게 생각해줄까? 머잖아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고령의 홀어머니는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고 계실까. 구순 중반을 넘기신 강순분 콘실리아 수녀님은 내가 어찌 되기를 바라시고 계실까?

많이 늦었지만 나는 이제야 다시 결심한다. 내 인생이 그러했듯이 슬펐던 지난날들을 이제는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보겠다고, 글쓰기가 취미인 내가 <편지 쓰는 모임>을 만들어 소외되고 그늘 밑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위문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는 내가 되겠다고, 내 고향은 청량리역 광장에서 배고픈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를 해보겠다고, 내가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마음이 변해 공부를 하고, '나눔의 결심'을 생각했듯이...

나에게 사랑을 전해 받은 사람들도, 차차 나 같이 마음이 조금씩 변하리라는 무지개 같은 생각을 하며, 오늘도 나는 이 글을 쓰면서 슬픔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려는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이 든다. 참으로 감사한 생각이다.



작품평 :수필의 특징이 진실한 고백 문학이라고 한다면, 슬펐던 지난날들을 솔직하게 고백한 수준작입니다. 글의 마무리 부분에서 슬픔을 벗어나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가는 긍정적인 자세와 자신감이 돋보입니다. 편지 쓰는 모임과 무료급식소를 해보겠다는 나눔의 결심이 훌륭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길을 깨닫게 해주는 좋은 글입니다.



내 손, 내 봄



박명숙

겨울에 존재하는 것들을 모두 메마른 소리를 낸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마저 내 손을 찰싹 때리며 아프게 지나간다. 이곳에 있는 이들 모두 따뜻한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다. 매서웠던 바람이 가고 이제는 느슨해진 겨울 끝자락에 서서 계절이 우리에게 남기고 사는 삶을 의미를 매번 생각하게 된다.

몇 번째 나의 봄일까, 21년 4월부터 지금까지 어느새 나는 세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해도 이맘때쯤이면 꼭 이름 모를 상실감에 젖곤 한다. 나 자신이 느끼는 상실의 크다고 생각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젠 다 잘될 거야’ 식의 마인드 컨트롤은 오히려 짜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 그것보다는 이 상실감을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를 감정적으로 느끼는 연습이 나에게 더욱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나의 감정을 잘 끌어내 줘야 미래의 태도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 생기고 마음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된다. 나만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법은 다양하다.

나이도 지역도 제각각인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나의 손이 많은 역할을 한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곱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아직 어린 손자를 위해 그림도 그린다. 이제는 제법이다. 그리고 보면 젊은 친구들에게도 참 배울 것이 많은 것이 이곳이다. 책장을 넘기기도 하고 기술 좋게 케이크 칼로 과일을 깎기도 한다. 오밀조밀한 것들을 고치는 수준은 꽤 기똥차다. 맥가이버다.

초를 닦는 디지털 시대에 손글씨 같은 ‘느린’ 미학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이곳이다. 한겨울에도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은 당연하거니와 바느질 솜씨도 수준급이다. 밖에서 쓰레기를 버려질 것들도 내 손을 거치면 반듯, 반짝! 다시 태어난다. 운동시간 30분에는 떨어진 쓰레기도 줍곤 한다.

일본 출신 메이저리거 ‘오타니 쇼헤이’는 ‘청소는 남이 떨어뜨린 운을 줍는 것!’이라 하며 쓰레기 줍기, 청소, 책읽기, 인사하기를 어릴 적부터 꾸준히 해왔다는데, 나 역시 이 두 손으로 부지런히 쓸고 닦고 움직이며 나도 몰래 운을 줍고 있었던 게 아닐는지 이 메마르고 거친 두 손이 사랑스럽다. 좁은 공간이기에 부지런히 움직이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생채기도 날 때도 있지만, 깨끗하고 정돈된 수용 생활을 위해서 언제나 내 손을 끊임없이 움직인다.

제각각 다른 너, 내가 뒤엎켜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자체로 나는 괜찮아진다.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라고 말한 석가모니의 정의대로라면 지금 나는 행복이다.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 새싹이 트는 소리마저 내 귓가에 들려 오는 듯하다.

겨울의 향기는 다를까! 시리도록 예이는 한겨울의 찜한 그것과는 다른, 겨울의 끝자락에서 온몸으로 느낀다. 아, 이제 너 봄이 내게로 또 오는구나!

앞으로 몇 번의 봄을 이곳에서 느끼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안다. 그때도 나에게는 나를 알아주고 다독여 줄 내 손이 있으리라는 것을.



작품평 : “행복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 “청소는 남이 떨어진 운을 줍는 것” 이라는 인용문이 공감됩니다. 나만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는 법, 마인드 컨트롤 등을 생각하게 해주는 성찰의 글입니다. 편지를 쓰는 일 등 우리의 손이 하는 다양한 역할과 봄을 맞이하는 마음을 연결하면서 글을 이끌어가는 솜씨가 훌륭합니다.



고백 그리고 간절한 바람



김재원

매년 새해를 맞으면서 새해의 달력을 볼 때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저희 어머니의 생신 날짜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음력 2월 4일이 어머니의 생신이기에 새로운 해의 양력으로는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4년 올해는 3월 13일이 저희 어머니의 양력 생신 날짜입니다. 특히나 올해는 어머니께서 칠순을 맞이하시기에 여느 해와는 달리 특별하고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직접 찾아볼 수도 없고 생신 축하드린다는 저의 마음조차 전해드릴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한순간 잘못된 생각에 의한 행동으로 인하여 교도소에 오게 되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와의 모든 연을 끊으셨습니다. 그래도 어찌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끊고 살 수 있냐고 저를 아끼고 걱정하여 주시는 주변 분들께서는 말씀해줍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강하시어 잘못된 것은 절대 그냥 넘기시지 못하시는 돌도 없이 엄격하신 분이십니다. 특히나 저에 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잣대로 유년 시절부터 엄하게 저를 가르치면서 키워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매 순간 저를 세상에서 가장 아껴 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인 것을 항상 피부 깊이 느끼면서 살아왔기에, 이 상황이 서운하다거나 이상하다는 생각은커녕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수용되기 전인 3년 전에는 저희 아버지의 칠순이셨습니다. 그때는 저희 부부와 여동생 부부와 조카 두 명과 함께 부모님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동해로 아버지 칠순 기념 가족 단체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함께 여행을 간 것은 처음이었기에 가족 모두

즐겁고 행복하게 넓고 푸른 바다에 가서 함께 걷고 사진도 찍으면서 예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바비큐 파티를 열어 맛있는 음식 실컷 먹고 즐기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가족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족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에 우리 가족 함께 약속 하나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3년 후 어머니 칠순 때까지 우리 가족 모두 몸 건강히 잘 지내어 누구도 빠지지 말고 이렇게 또 다 함께 가족여행을 가자는 약속하면서 아쉬움은 접어두고 웃으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뒤 여행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제 여동생과 통화를 하면서 여행 간 있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행하러 와서는 여자분들은 일하는 거 아니라고 말하면서 가족들 모두 함께 할 바비큐 파티를 위해 식재료들을 준비하고 세척 손질한 후에 하나하나 굽고 조리하는 저를 보면서 계속 미소 지으시는 어머니께 저의 여동생이 엄마는 뭐가 그리 좋으셔서 계속 웃고 계시냐고 묻자,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그저 제가 있는 것만으로도 다 좋고 된 거라고 하셨다면서 그 말 듣는 내내 삼삼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동생이 “엄마한테 오빠는 그런 존재야. 그니까 엄마한테 더 잘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25년 전 국방의 의무를 위하여 군 복무를 하던 그때,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면회를 오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물며 몇 달 만에 휴가를 받아 집에 가도 반가워하시기는커녕 저에게 항상 몸가짐 더 조심하고 잘 지내다가 복귀해야 하는 거라고 하면서 엄히 저를 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어머니의 성향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으로는 참 많이 서운하고 섭섭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방의 의무를 무사히 마치고 십여 년이 지나 저의 결혼식 날짜를 앞두고 있을 때쯤, 저의 여동생과 이런저런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군 복무하던 그때, 어머니에 대한 미처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 복무하던 2년 2개월 내내 제가 있지도 않은 제 방을 매일 같이 정리하시고 계절마다 침구류와 커튼도 매번 바꾸셨다고 그리고 제가 휴가 나왔다가 복귀하면 항상 며칠 동안은 멍하니 계시는 때가 많으셨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대로 복귀한 날 저의 방을 정리하면서 제 베개와 제 옷을 끌어안고 우신 적도 있었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휴대폰만 쥐고 있다가 한참 동안 그냥 그렇게 울었습니다. 항상 저를 엄하게만 대해 주시는 제 어머니를 야속하고 서운하게만 생각하였던 철이 없었던 그때의 제가 너무도 한심스러웠고 그 무엇보다 어머니

홀로 곁에 없는 저를 생각하고 위해 주시며 항상 저의 안녕을 간곡히 빌어주신 어머니의 숨겨오신 진심과 마주하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의 저의 감정들이 요동치고 허물어지면서 그리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올해 어머니 칠순을 맞이하여 다시금 가족여행을 가자고 했던 그 약속은 못한 저로 인하여 지킬 수 없게 되어 참으로 죄스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제가 더 죄송하고 걱정스러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군 복무를 하였던 지난 25년 전보다 많이 연로해지신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이 아들을 생각하시면서 무척이나 그리워하고 계시지만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못하시며 홀로 전전긍긍하실 어머니의 심정이 그 얼마나 한스럽고 고통스러우실지를 생각하노라면, 어떤 무엇도 해드릴 수 없는 지금의 저 자신이 너무나도 밋고 원망스러워 어머니께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국가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있었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큰 죄를 짓고 범죄자의 신분으로 집을 떠나있는 것이기에 당신께서 느끼실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가지실 참담한 심정을 어찌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무엇보다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제가 이렇듯 교도소에 있는 책임의 원인이 어머니께서 저를 잘못 키우셔서 그러한 것이라며 홀로 자책하고 책망하시면서 당신께서 스스로 만드신 감옥에 갇히셔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이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현재 상황에 어머니에게 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전혀 없기에 매일 매시간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금 교도소에 있는 것은 오롯이 저의 탓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으로 올곧게 잘 커서 일가도 꾸리며 누구 못지않게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행동으로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온 것이고 지금은 그에 대한 죄값을 온전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바르게 잡아주고 세워주신 저의 기둥은 분명 곧고 튼튼합니다.

다만 한 나무에 수많은 잔가지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게 되는 수많은 생각 중 그 순간의 잘못된 생각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중심이 되는 기둥 몸체만 튼실하다면 썩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뻗은 잔가지는 잘라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렇듯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무가 더욱 올곧고 푸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저도 이곳에서 잘못을 많이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여 예전보다

더 올바르게 좋은 사람이 되어 다시금 어머니 앞에 당당히 서겠습니다.

3년 전 약속은 지키지 못한 불효자이지만 지금, 이 약속은 꼭 지키어 어머니의 소중한 아들로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부디 어머니를 자책하시며 홀로 만드신 지옥에 갇혀 지내시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몸 건강히 계셔 주시길 간절하게 바라웁니다. 반성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머니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사랑하는 우리 엄마의 칠순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같은 마음으로 우리 엄마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보고 싶습니다.”



작품평 : 어머니의 칠순인데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멀리서 축하해야 하는 아들의 심정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새해의 달력을 볼 때면 항상 제일 먼저 어머니의 생신 날짜부터 확인하는 습관, 아버지 칠순 때 약속했던 일을 지키지 못한 고백이 간절한 바람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의 고향이고 안식처인 어머니에 대한 회상이 사랑으로 다가오는 따스한 글입니다.

“수필”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문복희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전진현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진현입니다. 고향은 ○○인데 이곳에 수감 되어 약 2년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이곳, 시야에 가려서 빛 그림자도 아닌데 허겁지겁 만나고 돌아서야 하는 곳... 한 달, 두 달, 일 년 모두 모아 수없이 많은 시간을 빼앗긴 곳. 이도 못 해 앞으로에 한숨 지으며 이 길을 어찌 가야 할까? 몇 번이고 놓아 버리고 싶었던 무너진 나의 인생... 하지만 일말의 양심이라는 마음이 버티고 있었기에 '용서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써 내릴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을 심어준 딸에게 감사하고 그 양심으로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살다가 마약이라는 덫에 걸려 오랜 시간을 바로 서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동안 제 딸아이는 16살이 되었고 어머니는 70대의 노인이 되어있었습니다.

마냥 청춘일 것만 같았던 저의 삶 역시 지금은 언니, 이모라는 말을 많이 듣는 나이가 되었지요. 울고 또 울고 그때 다 못다 울었을까요...? 발길 돌려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지팡이에 지탱한 한 노인이었습니다. 참회의 눈물이 흐르고 또 흘러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굽혀져 있는 허릴 세워 딸 걱정은 말고 이번만큼은 마지막이길 소원하신다는 어머니께 용서를 빕니다. 쾌락을 찾아 철없이 헤맬 때 어머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손녀라는 이유로 삶을 희생하셨던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알 수 없었던 저에게 변화가 온 것은 이곳 ○○에서 '감사쓰기, 인성교육'

용서를 구합니다

등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다짐하고 다짐하면서도 무너진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신 어머니께 용서를 구합니다. 남편마저 곁을 떠나버린 저의 딸 곁에 남으시어 제 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고자 이 먼 섬까지 왔을거라 생각해 봅니다. 비록 가중처벌이라는 큰 벌을 받아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과 뼈골째 서 있는 삶을 멈추게 한 양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얻어진 양심은 바로 제 딸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어머니와 같이 저 또한 어머니라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의 양심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어머니의 이유 없는 희생을 이제야 알게 됨을 용서를 빕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불효를 어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라는 직분으로 예쁘게만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엄마, 그럼요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세요, 미안해요, 건강하게 기다려 주세요. 엄마!”

작품평 : 몇 번이고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는 동안 딸은 16세가 되었고 어머니는 70대 노인이 되었다고요. 마약의 유혹에 넘어가 전과가 늘어가는 동안 세월이 10년 이상 흘러갔다는 얘기로군요. 인간의 의지로 과연 부리칠 수 없는 것일까요? 가족에게 죄를 짓고 본인은 폐인이 되는 것이 마약인데 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남편까지 떠나버린 이후 그대가 키워야 할 딸을 키워주신 어머니께 속죄하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딸에게도 엄마 노릇 이제는 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마지막입니다.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믿겠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최광표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2월 14일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던 사업의 경영 악화와 개인사까지 겹쳐 2022년 5월 무작정 ○○로 향했습니다.

○ ○에 도착 후 부산을 거쳐 동해, 강릉, 속초에 들러 설악산 울산 바위 쪽에 갔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삶을 포기하고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소중한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지인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문자로 보내고 바위 위에서 뛰어내리려 할 때 그 순간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시도했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울고 말았습니다. 한순간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할 때 저의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감싸준 딸아이와 가족이 없었다면 저는 당시 바위 위에서 뛰어내려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후 저는 지인이 운영하는 ○ ○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토목공사 현장을 함께 다니며 공사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며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삶을 체험하며 하루 13만 원의 일당을 받아 가며 생활을 이어갔고 난생처음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내가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최고 좋은 옷과 최고 좋은 차를 선호하기도 했었던 멋쟁이 아닌 멋쟁이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류의 그룹에 끼여 살기도 했습니다.

저는 ○ ○에 살면서 펜션도 운영해보고 사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이 한때는 23명에 이르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게을리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며 언제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수산물 가공 공장 두 곳과 펜션을 운영하고 ○ ○수협, ○ ○수협 중매인까지 너무나 바쁘게

용서를 구합니다

살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한동안 잘나가는 사장님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같은 또래 친구들과 모임에서는 회장역을 맡아 한 모임의 리드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저에게 시련이 닥쳐온 것은 10년 전 알게 된 동생을 통해 노름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부터였습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와 골프를 프로수준일 만큼 잘하는 편입니다. 반대로 승부욕이 강한 편입니다. 이 부분을 안 ○○ 동생은 어느 날 ○○에 내려와 저에게 재미 삼아 본인이 돈을 대줄 테니 게임에 앉아만 있으라며 저를 게임 바카라에 데리고 갔습니다. 첫날은 300만 원, 둘째 날은 7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작전이었다는 것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후 셋째 날 300만 원, 넷째 날 2,000만 원을 오히려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바카라 게임은 한 달을 했고 저는 이 동생에게 3억 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 도박으로 잃은 돈이 7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은 저를 더 피폐하게 만들었고 손을 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2021년 6월 저는 ○○읍 ○○리에 있는 타운하우스 9개 동을 법인체 인수하여 공사하면서 분양과 전세를 모집했고 당시 전세 세입자와 임대 세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유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7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한번 꺾이기 시작한 기운은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저를 몰아갔습니다. 가장 힘들어할 때 2021년 11월 23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병환 중이던 어머니를 1년 정도 집에서 모시면서 병치레를 집에서 헤드렸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면서 삶에 대한 회의를 느꼈고 당시 전세, 임대를 살고 계시던 세입자분들의 고소가 진행되었고,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될 듯 될 듯하면서도 일이 꼬이기 시작하여 제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어 삶을 포기하고 2022년 5월 초 무작정 ○○로 향하였고 울산 바위에서 삶을 포기하고 뛰어내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집에 전화했을 때 딸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14일 구속 수감이 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곳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수감 당시 몸무게가 89kg에서 74kg까지 감량이 되었고 당뇨도 210에서 120으로, 혈압은 170에서 120대로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곳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쯤 저는 생을 마감했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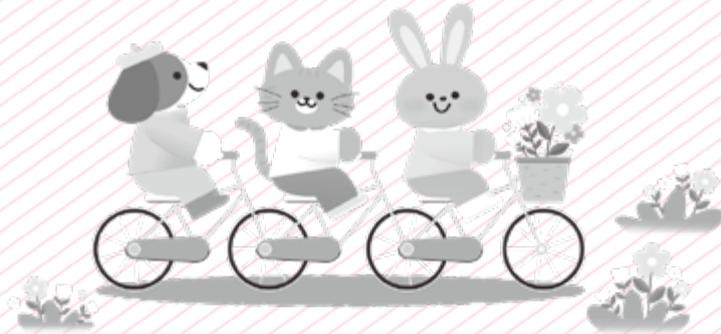
이후 저는 정신을 차리고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했던 삶을 다시 용기를 내기 시작했고 서류를 받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서류가 오가면서 전 시행사 대표의 잘못과 직원의 잘못을 알게 되었고, 재판을 통해 이 부분을 증인 심문 과정 중에 밝히게 되었고 또 투자자를 유치해 채권단인 은행과 유치권자인 시공사, 협력업체, 그리고 전세 임대 세입자를 차례로 만나 협의를 하였고 최종 합의금을 조율 중입니다. 저로 인해 피해 입은 분들에게 보증금을 돌려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삶을 포기하고 죽으려 할 때 저에게 꿈과 희망을 다시 안겨준 가족과 그리고 제가 구속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에 저를 찾아와 준 전세 세입자분들의 용서가 없었다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세상의 끝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희망을 주고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가족과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었는데도 저를 찾아와 용기를 주신 전세 세입자분들의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잠깐 욕심에 눈이 멀어 세상을 잘못 선택했던 저로 인해 상처 입은 가족과 피해당한 전세 임대 세입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소중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준, 용기를 준 가족과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 삶에 있어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책임의 무게를 알고 소중한 삶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품평 : 일 욕심이 많고 성실함이 몸에 밴 그대에게 왜 그런 시련이 찾아왔을까요? 도박성 게임에 빠져들면서 한평생 공들여 세운 탑이 와르르 무너졌으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하루에 700만 원을 번 쾌락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자살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속죄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으면 안 되지요. 책임의 무게를 알고 최대한 노력하며 살겠다고 한 자신과의 약속, 꼭 지키기를 기원합니다.

용서의 글



이현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늘 한결같다. 그것은 모정이란 것을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고난과 고통속에서 힘겨웁게 나날을 견디고 버티어 오시고 그 고생길을 지내오신 어머니. 제가 어찌 모르오리까. 저를 업어 키우시고 어디 아프지나 앓을까? 노심초사 하시며 세월과 함께 걸어오신 어머니. 그 곱던 피부는 온데간데 없고 잔주름만 남으신 어머니. 그 모습을 볼때면 나의 가슴은 몽클거렸고 한편으로는 아름답고 황금처럼 빛났다.

나는 백화점 영업사원으로 7년만에 그만두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다. 시간은 흘러 2024년 올해 내나이 58. 어머니 연세 83. 지난 3년전에 초기치매라는 진단을 받고 2023년 5월달까지 잘 지내 오셨다. 건강하셨던 어머니를 곁에서 보살피면서 건강체크를 하며 흑시나 하는 마음에 서서히 나아지시겠지 기대감을 가지고 생활해왔다.

어느날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안방으로 들어서자
“현수야 약이 없다” 하시는 말에 “어머니 화장대 위에 있잖아요”
순간 내 가슴속에서 눈물이 흘러 내린다.

이제는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시고 어리광을 부리신다. 매일 반복적인 피곤한 생활에 그래도 나는 열심히 보살피며 곁을 지켰다.

어느 하루는 나의 가슴이 속상하여 저녁에 내 방에서 막걸리 두병을 놓고 한 잔, 두 잔 마시며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히 회상과 생각을 하는 순간 어머니가 내 이름을 힘차게 부르시어 안방에 가니

“화장실 가고 싶어”

불일을 도와드리고 내방으로 다시와서 마시던 잔을 잠시 비우는 사이 또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였다. 술에 약간 취해 나도 모르게 괜히 짜증이 오면서 방에 있는 물건을 던져 부서지는 소리에 어머니가 놀라시어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다.

그 후에 동네 경찰이 와서 나를 데리고 지구대에 도착했고 기다리는 도중에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 경찰서 유치장에 2023년 8월 7일에 들어갔다. 며칠 지난 뒤 지방검찰청 검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던 중 어머니의 팔에 상처가 났다는 말을 하며 네게 증거사진을 보여주며 “어머니 팔에 상처를 나게 한게 아니냐?” 의심하며 말을 하였다. 난 사진을 보는 순간 울먹이면서 “제가 어떻게 어머니 몸에 손을 댄니까?”반문을 하며 소리쳤다. 며칠 후 구속영장이라는 것을 발부받아 ○○교도소에 들어오게 되었고 4개월 후 1년 실행 선고 받고 현재 수감중이다.

나의 무책임과 과오로 인해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하여 저로 인해 놀래어 나가시고 다치시게 하였기에 나의 잘못을 알고 회개하면서 묵묵히 지내고 있다(성경 잠언 10:1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를 기쁘게하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를 근심하게 한다. 23: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지금에 와서 늦은 나이에 이 못난 아들이 자아성찰을 하면서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어머니 지금은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겠지만 눈빛으로나마 저의 못된 행동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한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앞으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효심이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나의 어머니 그동안 저를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정성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행복을 듬북답아 보답하겠습니다. 어머니 다시한번 용서를 빕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집으로 가는 날까지 건강하세요.

작품평 : 치매기가 있는 팔손의 어머니를 폭행한 죄로 형을 살고 있다니 안타깝기도 하지만 화도 납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연히 횡김에 어머니의 팔에 상처를 냈지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그대가 와서 사죄하면 용서해주실 겁니다. 함께할 날이 많지는 않겠지만 효자로 거듭나는 그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글



김정환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에 구속되어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서 제가 저지른 범죄의 반성을 하고 있으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범죄의 죄값을 달게 받으며 반성하겠습니다.

저는 2남 중 막내로 태어났으며 부모님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 성장 하였으며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가정 형편은 그리 나쁘지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건축일을 계속해서 하셨으며 일을 마치고서도 농장에 흑염소 100여 마리를 키우셔서 사료와 풀, 물을 주시며 정성스럽게 하루도 모자랄 만큼이나 열심히 살아오셨던 자랑스러운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검사 결과 간경화(심부전증)로 인해서 간이식 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한치의 망설임없이 간이식을 해드려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 상대로 생각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으며 여자친구의 아들과 딸도 같이 동거하며 아버지께서 건강이 회복되시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것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까지 모두들 반대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새터민이었으며 자식까지 둘이나 있는 상황인데 어느 부모님이 허락을 쉽게 하겠습니까? 너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여자하고 만나려고 하냐고 많이 꾸중을 들으며 혼났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에서 같이 살고 있었으나 여자친구는 아버지께서 아프시니 부모님께서 살고 계시는 ○○로 가까이 가서 병 간호를 해드리고 싶다고 말을 해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여자친구의 마음을 아셨는지 마음의 문을 여셨으며 부모님께서서는 저희의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간 검사를 다 마치고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간 크기도 크고 간이식하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 ○○○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아버지께서도 무사히 수술을 마치셨고 저 또한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하시며 1년 가까이 잘 지내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 병원에서 대장에 췌장까지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간이식 후 술을 마시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저는 한순간의 음주로 인해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 구속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셔서 몸도 불편하신 상황인데도 아들 소식을 접하자마자 접견을 오셨습니다. 정말 실망시켜드려 죄송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는 한참을 울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겠다며 변호사를 알아봐 주셨고 아들 재판 때 갈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가 아침 일찍 접견와서는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왔다 길래 무슨 소리냐고 묻자 아버지께서 수술 중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으며 여자친구 또한 자기도 이사를 가겠다고 마지막 인사를 저에게 하였습니다. 저에게 슬픔이 물밀듯이 밀려왔고 저를 변호해주실 변호사님이 형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것마저 기각되어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배웅도 못해드린 불효의 자식으로 낙인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출소할 날이 많이 남아있지만 출소 후 아버지께서 계시는 수목장에 찾아뵙고 인사와 함께 용서를 빌겠으며 그동안 어머니께서도 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고 계셨을텐데 못다한 그동안의 효도를 해드리며 어머니와 형하고 제 인생 2막을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세상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가족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어머니와 형에게 두 번 다시는 실망시켜서는 안된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우리 형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작품명 : 술을 마시고 무슨 죄를 지었기에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께 간도 이식해 드린 효자인 그대가 말입니다. 어언 6년이 되었으니 이제 1/4이 흘러간 셈입니다. 그대의 출소를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아버지 수목장 장소에 가서 큰절 드리는 날이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하루가 쌓이고 쌓여 그 언젠가 출소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용서의 글



김재연

“전세 사기 피해사례와 위험성”

안녕하세요. ○○교도소에 수감 중인 43세 김재연이라고 합니다.

어느 덧 구속된지도 4개월째에 접어들면서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30대 초반까지 직장생활을 했었습니다. 20대 후반엔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도 꾸렸고 제 삶의 이유이기도 한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홀로 지내고 계시던 어머니의 치매 판정과 더불어 급속도로 병세가 악화되면서 요양병원 입원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제 나이 30대 초반... 누구의 원망도 할 수는 없지만 너무도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수년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알뜰히 살았는데도 저에게 있는 돈이라고는 몇 백만원이 전부였습니다.

매달 100만원이 넘는 어머니 병원비와 전셋집 대출금 상환 등 쉬지 않고 특근 및 잔업을 해도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는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힘들어진 생활 때문에 어디든 지금보다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바뀌야 하는 부득이한 처지에 놓였고, 와이프와 상의 후 영업직으로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때부터 친하지 않은 친구가 없었을 정도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했던 저는 처음 접해본 중고차 영업이었지만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구두 밀창이 많도록 뛰어다니며 내 집 마련의 꿈도 이루고 틈틈히 준비를 해서 부동산 영업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매일매일이 꿈만 같고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0년 지기 친구가 부동산으로 찾아와서는 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인 이모의 오피스텔 두 채가 있는데 전세로 임대를 나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저에게 매물을 줬습니다. 당시 오피스텔

전세 매물이 아주 귀했던 터라 친구에게 거듭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 일이 마무리되면 술도 한 잔 사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인터넷에 광고를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고 하루 만에 두 채 다 가 계약금이 입금되며 본 계약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부동산에서 친구와 친구 이모의 회사 대리인, 세입자 이렇게 다 모여 계약서 작성 전 절차인 신분 확인 및 관련 서류 확인을 진행하고 두 채 다 동일하게 정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친구 덕분에 손 안대고 코 푼다는 말처럼 150만원 정도 되는 중개수수료를 아주 편하게 벌었고 기분 좋게 술도 한 잔 샀습니다. 이렇게 친구 매물을 정리하고 몇 개월 동안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던 중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친구에게 받은 매물 두 채를 언급하며 세입자들이 사기로 고소를 했으니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친구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전화를 계속 했지만 그때부터 친구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 친구는 20대 후반, 취미생활을 하던 중 당구장에서 알게 된 인연이고 신용불량자란 단점은 있었지만 저에게 단 한번도 실수한 적이 없었고 한 달에 두 세 번씩 술자리를 갖던 친한 친구였기에 더욱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서 1차 참고인 조사에서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말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고 계약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및 각종 서류는 전부 위조된 것들이었습니다. 1차 조사의 충격을 씻어내기도 전에 2차 조사에서 저는 피의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통장을 못 쓴다는 친구는 가끔씩 제 계좌로 송금을 하고 현금 인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장기간 했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된 적이 없었기에 아무 의심없이 몇 번 인출을 해줬는데 계약 후 인출해 준 돈은 전부 전세금을 받은 대포통장에서 송금이 됐었고 이 이유 때문에 사기자금 인출책에 전세사기 공범으로 의심을 받으며 피의자로 조사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5개월 동안 지속된 조사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저 또한 혐의를 벗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와 CCTV 확인 등 다방면의 수사에도 제가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현금 인출과 계약 시 사용된 위조 서류들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경찰의 결론이었습니다. 억울했지만 정황상 피해가지는 못할 상황이고 저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었기에 구속이라도 면하기 위해서는 2건의 피해금을 합의하고 재판에서도 인정하고 무조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유리하다고 변호사님과 경찰분들께서

용서의 글

말씀하셨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 당장 해결하지는 못하고 수사기관의 배려로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고 그 때부터 함께 노력해서 일궈놓은 가정이 한 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영업을 병행해 보겠다고 와이프에게 얘기했을 때 잘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왜 굳이 이것저것 일을 하나며 말렸었지만 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하게 되었던 상황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래도 합의는 해야 했기에 적금을 해약하고 처갓집에 수 천만원을 빌려서 피해금 총액 1.9억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모든 내용을 알리고 저의 과실로 사건이 시작된 거라며 정중하게 사과도 드리고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이긴 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도 양형자료의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각되었고, 상고를 포기하며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외증에도 와이프는 “돈은 다시 벌면 된다.”, “오빠 잘못 없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라.” 항상 저를 믿고 응원하며 힘을 실어줬는데 제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구속이 된 거 같은 생각에 지금까지도 너무 미안하고 밤잠을 설칩니다. 또한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아이도 아빠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다는 사실로 충격을 받고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안 된다고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만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저만 바라보고 있는 착한 와이프와 착한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런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나 가혹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수감 생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류심사를 받고 출역도 나갈 계획이며, 최대한 긍정적으로 출선수범하고 봉사하며 남은 시간동안 한 가지라도 얻어서 사회로 복귀할 생각입니다.

내 삶의 원동력,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기에 저는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냅니다.

작품평 : 친구에게 속아서 범죄자가 되는 과정이 너무 기막힙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고 그대는 가해자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찻값을 치르게 했으니 큰 인생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회뇌동’의 우리 속담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 주관으로 판단하되 늘 양심의 가르침대로,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기 바랍니다.

고아였으면...



유영아

누구나 이곳에 있는 이상 죄인이겠지만, 저처럼 오랜 세월 가족과 어머니께 매정하게 자취를 감추고 살아가 죄인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31살에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큰 죄를 짓고 미국으로 건너가 48살이 되어서야 그 죄값을 받기 위해 자수하여 입국하였습니다.

17년 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 삶조차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하였으나 그마저도 저같이 용기 없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더군요. 어릴 적 저는 어머니의 집을 털어드리고 빨리 성공해서 경제적인 문제들에서 자유롭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생각처럼 되지 않자 가족들과 어머니가 점점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명예를 씌우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씌워진 명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차라리 '고아였으면 얼마나 흥분할까 죽을 때도 걱정이 없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으로 간 후 돌아오지 못한 채 17년을 총소리와 마약중독자들과 노숙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광야에서처럼 보호해 줄 나라도, 돈도, 희망도 없이 죽지 못했기에 살기 위해 살았습니다.

생활의 고단함이야 저의 선택으로 만든 것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 안에 양심이 저를 힘들게 하였습니다. 저의 죄로 인해 피해자분들도 가해자의 가족이자 피해자인 가족들도 온전히 살아계실까, 저로 인해 돌아가신 분은 없을까, 나는 이제 계속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고아였으면...

이런 용기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죄를 스스로 밝히고 죄의 값을 받아야겠다는 확신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엘에이 영사관 한○형 영사님의 도움을 받아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실종신고로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던 저는 정말 다시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두렵고 무서워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한국행을 17년 만에 스스로 결정하였고 그 끝에는 무겁고 무서운 형벌이 있음에도 정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함으로 입국하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되었을 때는 처음 차보는 수감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진정한 자유로움과 한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차게 기뻐다면 제가 이상한 걸까요?

정말 막혔던 숨이 한꺼번에 트이는 듯했습니다. 유치장에서 17년 만에 만나는 어머니와 언니들이 보고 싶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늙으셨을까, 나를 용서할까, 나를 모른 척하지 않을까, 모두 저만의 걱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저만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멍멍한 목소리로 이제 우리 가족은 걱정도 울 일도 없다며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들도 제가 준 손해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 너무 기쁜 날이니 울지 말고 얼굴 좀 보자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17년 전 제가 했던 어리석었던 생각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저 자신이 너무나도 무섭고 창피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알지만 알고 싶지 않았던 모든 일들이 낱알이 들춰지면서 제가 얼마나 나빴는지, 잘못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7년을 덮어 두었던 고통을 다시 들춰내야 하는 피해자분들께 오래전에 용서를 빌고, 찢값을 받고, 피해 보상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했는데 저의 뉘을 다하지 못해 너무나도 죄송하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앞날의 목표는 이전에 다하지 못한 것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결심했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법, 하나하나 공들여 살아가는 법, 잘못된 것을 바로 인정하는 법, 불효하지 않는 법,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이제는 처음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야 저는 생각해봅니다. 내가 정말 ‘고아였으면’ 어땠을까, 돌아온 탕자처럼 저를 반겨주는 어머니가 없었다면 지금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만으로도 너무 무섭습니다.

이제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은 지워버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께 더 이상 피하지 않고 열심히 사죄하며 관계 회복과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사죄드리며, 끝까지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얼마 전 실종선고 사망 처리된 저를 1심 국선번호인이신 이○호 변호사님께 도와주셔서 이제는 사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 제가 계획을 세우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용기를 준 가족들과 많은 도움 주신 분들과 사죄의 기회를 주신 피해자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또 저 같은 죄인을 국민으로서 다시 받아주신 대한민국에 감사드립니다. 감히 입으로만 하는 사죄가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 다해 가족들과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빌고 죽는 날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루를 살수록 하루가 지옥이었던 지난 17년보다 하루를 살 때마다 하루가 희망의 삶이 되어가는 지금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작품평 : 참으로 기구한 생입니다. 서러운 삶에 죄를 짓고 미국으로 달아나서 마흔여덟 살이 되어 귀국, 자수하고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요. 17년을 총소리와 마약중독자들과 노숙자들 속에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기 행불자로, 결국은 사망자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어머니와 언니와의 상봉 장면이 극적입니다. 그대는 고아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피해 보상을 금전으로 하기 어렵다면 그대가 그 안에서 출역(出役) 나가 번 소액이라도 하기 바랍니다. 용서를 청하는 이 글을 그분들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리고 용서



이준경

제 죄를 반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시간을 잊게 하고, 시간을 잃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시간을 알게 됐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꽤 단조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검받고 아침 식사를 하고, 점검받고 운동을 하고, 점심을 먹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점검받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괴로울 게 없는 삶인데, 왜 저는 징역이 정말 무서운 형벌이라고 느끼고, 괴로운 걸까요?

미결수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임시 출역이라는 일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출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동 청소부님을 도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 방에서 임-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임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밖에 나와서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아마도 주임님은 방에서 생활하는 것을 그리 괴롭지 않게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이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으니까요.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다큐멘터리를 보든, 저는 철저히 외부의 시선으로 징역을 바라봤기에, 이 형벌이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재판 중에 미결수로 8개월 넘게 이 곳에서 생활 중입니다. 시간을 잊고 있습니다. 아니 잊고 싶어 합니다. 월요일이 지나면 금요일이 오고, 금요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오는, 빠른 듯 느린 시간 속에서 괴로웠던 지난 시간을 잊고, 잊으려고 합니다. 매일 매일 너무나 괴로우니까요.

사람에게 자유가 구속된다는 것은 정말 너무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생활이 언제 끝날지 막막한 것도 있고, 생활 환경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족들 때문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는 시간을 잊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제가 없습니다. 늙어가는 어머니, 누나, 그리고 커가는 조카들, 너무나 아까운 그 시간 속에 제가 없습니다. 저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족들에게, 저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픔으로 기억되며, 가족들과의 시간을 잃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잊고, 잃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죄로, 사람들의 시간을 잊게 하고, 잃게 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피해를 줬고, 주고 있다는 걸 이곳에서의 생활이 더 없이 일깨워줍니다. 이곳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차라리 생각을 덜 하면 덜 괴로울 텐데, 어쩔 수 없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생각 속에서 반성하고, 사과하며, 참회합니다. 저의 진심이 혹시라도 왜곡돼서 전달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사죄의 마음 전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더는 시간을 잊지 않게, 잃지 않게 하도록 사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사람들에게 그런 돌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아픈 돌이었습니다. 호수는 이내 잔잔해지더라도 돌은 남아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저는 용서를 빌며, 호수의 물에 저의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녹이고 싶습니다. 부디, 호수의 물이 돌을 침식시켜서 무너지길, 사라지길 바랍니다. 다시는 수면위로 올라가는 일이 없이 호수 밑에서 조용히 계속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2023년에 이곳에 들어왔는데, 벌써 한해가 지나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던,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께 기도하며 용서를 빌겠습니다. 새해에는 힘든 일 없이 모두 복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 또 내일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작품평 : 미결수이니 형량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쓴 글이군요. 어떤 죄를 지어 그곳에 있는지, 얼마나 있다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이는 파문에 대해 쓴 그대의 글은 아주 감동적입니다. 세상사에 대해 이렇게 깊게 성찰하고 있는데 벌을 받아야 한다니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호수 바닥에 가라앉은 아픈 돌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제2의 삶을 소중하게 가꿔가길 바랍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 복숭아와 아내



염문성

아내와 저는 20여년전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첫 눈에 반했다라는 말이 꼭 들어맞을 만큼 처음 본 순간 이 여자가 꼭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 아내 역시 같은 마음이었고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두 분 다 중국 교포 2세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하고 중국을 왔다갔다 자랐기에 중국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능숙했고 한국 문화가 더 익숙했습니다. 중국인도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경계선에 늘 서있는 듯 했고 많은 방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려 하던 저를 바로 설 수 있게 해준 게 바로 아내였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제 말만을 굳게 믿고, 수십년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온 아내는 짙은 향수병에 시달리고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슬픔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제가 미안해할까봐 걱정할까봐 최대한 티를 내지 않은 채 헌신적으로 내조를 해주었습니다. 낯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고 언어를 배우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한 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고달픔과 힘겨움을 알면서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부끄러울만큼 무뚝뚝하고 무심한 저였습니다. 참으로 못난 저를 믿고 지지해주고 한없이 사랑해주는 고마운 아내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이 금슬 좋고 행복한 부부사이였지만,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는게 마음 한구석이 걱정거리였습니다.

아내 역시 내심 바라며 기다리는 눈치였고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이를 드디어 6년만에 갖게 되었을 때 온 세상을 가진 것만큼 기뻐고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고 가장으로서 더욱 최선을 다해야한다라는 중압감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돈을 벌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일에만 몰두하는 날들이 늘어났고 정작 아내를 보살피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무거워지는 몸과 심한 입덧으로 식사마저 잘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리도 무심했던 것인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후회가 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면서 어렵게 꺼낸 말은 복숭아가 먹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사다줄 수 있겠냐는 말이었습니다. 건성으로 알겠다고 사가겠다고 대답을 하고선 금새 잊어버렸다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야 생각이 났습니다. 어차피 복숭아가 잘 나오지도 않는 계절이었던데다가 다른 과일 먹으면 되지라는 편한 생각으로 굴 한봉지와 사과 한봉지를 사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사온 과일들을 보며 아내는 평평 울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겨우 생각난 게 복숭아인데 그 걸 못 사다주냐고 나는 여기 한국에 엄마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서 챙겨줄 사람 한 명 없는데 당신마저 안 챙겨주면 나는 어떡하냐고 큰 소리로 영영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것은 복숭아였던 게 아니라 사랑과 관심이었음을...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것임을, 따스한 말 한마디와 위로가 필요했던 것을 깨달았고 한 없이 아내에게 미안해졌습니다.

냉랭한 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을 때 미운 남편도 남편이라고 속상하고 섭섭할텐데도 아침상을 차려놓은 아내에게 더욱 미안했고 일도 잠시 미룬 채 하루종일 복숭아를 찾아다녔습니다. 시장에 마트에 백화점까지 과일과계란 가게는 다 찾아 다녀봤지만 제철이 아니면 구할 수 없는 복숭아는 어디에도 살 수 없었습니다. 잔뜩 풀이 죽은 채 복숭아 통조림을 사서 집에 들어서자 아내는 깔깔 웃으며 고생했다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습니다.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주고 언제나 행복하다 말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첫째를 낳았고 곧이어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더 이상 바랄게 없을 만큼

용서를 구합니다 - 복숭아와 아내

단란하고 행복했었는데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욕심에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곳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나고 어리석은 남편이 한 없이 미울만할텐데도 도리어 저를 걱정하고 잘될거라고 할 수 있다고 위로를 해주는 착한 아내였습니다.

아이들을 걱정말라고 당신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내가 더 잘키우겠다고 당신 옆에는 내가 있다고 말해주는 아내에게 더욱 미안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이번에 나오면 진짜 복숭아 사줄거냐고 장난스레 말하는 아내에게 십몇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복숭아 타령이냐고 타박을 했지만 오늘도 어제와 내일도 매일 다짐을 합니다. 쫓값을 치르고 이곳에 나서게 되면 아내와 아이곁에 늘 머물겠다고 많은 돈이 행복을 주는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행복임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보! 못난 남편을 만나 낯선 나라에 와서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용서해줘 이제 정말 당신곁에서 당신만 보며 살아갈게. 사랑해 늘 내 곁에서 힘이 되줘서 고맙고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해』

작품평 : 재중국 교포의 아들로 태어나 우리말과 중국어를 다 잘할 수 있게 되었다면 큰 자산을 갖게 된 것입니다.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한 지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까지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민 그대가 욕심에 눈이 멀게 되었으니 안타깝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가졌을 때 복숭아를 먹고 싶다고 했다면 슈퍼에 가서 복숭아 통조림을 사 갖고 갈 것이지, 뭐하신 겁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행복임을 알았더니 다행입니다. 네 가족이 오순도순 살게 될 날을 꿈꾸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국민 영웅께



정재훈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철없는 나이에 어리석은 판단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러 후회와 반성하는 마음으로 죄값을 치르고 있는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제 삶을 바꾼 현장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밤낮 안 가리고 고생하시는 경찰관님께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입혀 2023년 4월 13일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수용 생활 중 우연히 “새길”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새길”에서라도 제 진심을 전해 용서를 구하고자 용기내어 글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학업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좋아했었고, 친구들과 함께라면 두려울 게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의 속은 많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오토바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치킨집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오토바이를 좋아했습니다. 학창 시절을 오토바이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위험하다며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취미를 가져보라며 걱정을 하셨고, 저도 한발 물러서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휴학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하여 노력을 해봤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결국 일과 학교를 그만두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한 국민 영웅께

할 줄 아는 것이 오토바이 타는 것 뿐이라 배달을 다시 시작하였고 평생 직업으로 하고자 제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배달 대행업”이라는 직업에 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오토바이로 인하여 현재의 제 모습이 이렇게 될 거라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의 선택에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대행업’이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고 친구, 동생, 형들과 한 가족의 가장이신 삼촌들과 아무 걱정 없이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수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오토바이가 부족하였고 이리저리 오토바이를 구하고 있던 중, 동네 친구가 오토바이를 판매한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친구의 오토바이는 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튜닝이 심한, 요즘 말로 ‘양카’인 오토바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정이 급했고 시승 후 이상이 없으면 구매를 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시승을 마치고 돌아오는 도중 음주 단속을 하고 계시던 경찰관분들을 보았고, 저는 음주는 아니지만 타고 있는 오토바이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긴장을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경찰관님은 저를 향해 정지하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정지를 하지 않았던 저의 행동이 제 인생을 바꾸었고 가장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과태료 50만원이 아까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경찰관님께 전치 7주라는 상당한 상해를 입혔으며, 손목 수술과 3달간 재활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피해 경찰관님과 그의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새길 봄호’에 용서의 글을 통해 사죄의 글을 올립니다. 제게 주어진 죄값이 결코 피해 경찰관님의 상처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 경찰관님의 고통을 잊지 않고 반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건으로 재판 중일 때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때 저의 심정은 눈물이 차오를 정도로 죄송했고 경찰관님의 넓은 마음이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형량 동안 반성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수용생활을 할 것이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무슨 일이든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출소 후 찾아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들을 위해 나라를 지키시는 영웅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보잘 것 없는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품평 : 국민 영웅이 누군지 궁금해서 읽어 나갔는데 경찰관을 지칭한 말이군요. 그렇지요.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군인, 경찰관, 소방대원이 모두 국민 영웅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개조를 많이 한 오토바이를 타고 있어 과태료를 낼 것이 뻔하자 경찰이 보자고 한 말이 겁났나 봅니다. 그냥 달아난 게 아니라 경찰관에게 7주 진단 상해를 입혔으니 크게 잘못했네요. 재판 중일 때 걱정해준 그 경찰관에게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누군가에게 늘 베풀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대도 의인이 될 수 있고 국민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글”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승하 교수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별의 유서

정지경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임원리 엄마의 눈물을
받아 적었네 엄마는 무학이었고 나는 국민학생이었으므로
두고 온 안부를 묻거나 타관살이 묵은 설움을 쏟아
내거나 한 글자 한 글자 나는 엄마의 심장이 되었지

오래된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화전을 일구다 허리를
퍼던 나무 그루터기 엄마의 등을 비비는 햇빛이었을 때
인민군에 징집된 남편을 기다리는 장마비 물 한 그릇
침묵을 흔들어 깨우는 바람이었을 때, 한숨과 뉘두리 사이
흩어지는 혼잣말 같았지

습성은 내 남루한 유산이 되었네 쉼한 저녁을 끌여가는
해진 신발들과 길 건너 깜박이는 점멸등의 잔영과
무시로 차가운 강물로 투신하는 어느 별의 유서까지 나는
받아 적었지만 밤마다 떠돌다 영킨 무수한 말들을 해독하며

작품평 : 시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과거로의 여행을 합니다. 깊은 산골에서 화전을 일구던 어머니와 아들. 뉘두리와 혼잣말을 받아적는 어린 아들의 침 묻은 연필심, 그 비뚤뻤한 저녁이 애뜻하게 다가옵니다. 차가운 강물로 투신하는 별의 유서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인생이 참 슬픈 것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시입니다.





소금향아리

허영이

마땅히 있어야 할 울림도 없었고
공간을 채우는 떨림도 없었다

염부의 손 끝에서 결정되어 버린 소금과
도공의 손끝에서 좌우되어 버린 향아리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누군가를 허영이라 했고 또
누군가는 취향이라 했으니

웁다는 생각 아래 행해왔던 언행들은 참으로 웁았던 걸까

하늘은 팔랑이며 바람을 사랑이게 하다
마음마저 그리 해버리니

잠자코 있던 마음 속 향아리가 울어 댄다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었고
어디서부터라고도 말할 수 없었지만

철 지난 바람의 투정이나 성마른 낙엽의 보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짜지 않게 자꾸만 자꾸만 세월이 익어갑니다

작품평 : '마음속 향아리가 운다'는 문장 앞에서 서성입니다. 우리는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며 담겨있는 내용물이 곧 우리 자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삶의 밖과 안, 육체와 정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허영과 취향의 거리, 웁다와 그르다의 거리로 인해 마음속 향아리가 울어댄다 하니, 시인은 짜디짠 마음을 품고 있는 향아리인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기

이태규

오늘이라는
영화를 찍는다.

눈꺼풀 셔터 한 번에
햇살이 비치고

눈꺼풀 셔터 한꺼번에
땅거미 지고

매일 같은 촬영에
지칠 만도 한데

NG 한번 없이
오늘도 짝뜨!

작품명 : 시는 짧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찰나인지 잘 보여주는 시입니다. 지치지도 않는지 오늘은 자꾸만 옵니다. 실수 한번 없이 오는 오늘, 그래서 잘 살아야 하는 오늘, 하지만 인생을 NG 없이 어찌 살아낼 수 있겠는지요. 사람이니까 가끔 실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거울이 되어줄 것이라는 마음이 읽히는 시입니다.





고향

전혜연

꽃이 필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은 밤에 피며
 아름다운 꽃은 밤에 집니다
 야트막한 언덕위에 아담한 마을
 동네 앞 신작로에는
 장에 가시는 아주머니들은 버스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습니다.
 철수네 앞집에 새로 시집 온 새댁의 시집살이 이야기와
 뒷집 영이네 사랑채에 하숙 온 고시생의
 통기타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아이들의 노래 소리까지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언제나 그 곳입니다.
 야트막한 언덕위에 때까지 지저귀며 찜살개가 짓는 곳
 고향이 그림네요
 아름다운 꽃은 밤에 피며
 아름다운 꽃은 밤에 집니다.

작품평 : 밤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건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기 때문
 이겠지요. 우리의 정신도 꽃처럼 어둠을 견디고 일어서는
 것이어야 겠지요. 고향의 정겨운 모습들은 모두 우리의 모습
 입니다. 추억의 풍경 속에서 피고 지는 사람들의 이야기야말로
 그리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 그리움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겠습니다.





오선지

김내아

지나간 인생길 구겨버린 오선지
희망이란 음표 하나하나 채워가며
아름다운 선율 들려오길 바랐건만
음률은 간데없고 한 숨 소리만 맴돌아

헛되이 채워져 구겨버린 오선지
소용없는 음표 음률 될 수 없기에
희망으로 밀어낸 절망의 한 숨
허무함 견디고파 마지막 도돌이표

앞날을 향해 새로 놓인 오선지
차디찬 한숨소리 음표 하나에
포근한 웃음소리 음표를 더해
희망의 선율 교향곡을 만들어간다.

작품평 : 인생을 음악에 비교한 시입니다. 좋은 선율은 사람의 마음에 닿는 법이지요. 그려 넣은 인생의 음표들이 한숨으로 허무함으로 돌아온다 해도 우리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오선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거기에 희망을 담은 새로운 가사와 멜로디를 만들어놓고 희망을 노래한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봄날을 찾아서

박수복



늦추위에 흐벅지던 그 햇살은
동백꽃 진홍색 잔상이 되고
입안에서 지분대는 잔재가 되어
한뼘 두뼘 사라져갔다

기다려도 오지 않던 그 봄날은
마파람에 거미줄이 몸을 사리듯
허상의 거울 위에 얼어붙은 듯
호흡마저 멈춘 나를 내려다본다.

명줄보다 질긴 악연의 줄에 걸려
사방이 막혀있는 절망의 미로에서
얼음 위에 던져진 물고기마냥
통풍이 파고들어 퍼덕거린다.

먼지 같은 숨기척이 남아있다면
조명등을 모두 켜서 틈새를 찾고
쇠창살을 파고드는 빛을 따라서
지옥의 눈길에서 벗어나 보자

저주파의 맥 놀림이 느껴진다면
극세사 용단을 넉넉히 펴고
가슴에 불을 놓아 해를 달구어
편견으로 파인 흠을 메워나가자

작품평 : 마음이 얼어있다면 봄날도 한겨울이겠지요. 어떤 계절이 와도 마찬가지겠지요. 악연 없이 생을 살아낼 수 있다면 좋겠지만 힘든 시절에 불가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고 정열의 여름과 수확의 가을을 불러옵니다. 가슴에 불을 지퍼 상처를 이겨내 보자는 시인의 다짐이 잘 빛어진 시입니다.



녹는 중입니다

김진석

남자는 불혹을 넘기면 갱년기가 온다고
 눈물도 많아진다고
 드라마의 묘미를 안다고
 꽃의 여림을 안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일에 절끔거리게 된다고
 가슴 언저리가 몽글거리고, 뺨뺨하던 등허리가 공처럼 말린다고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남의 사연들이 이토록 가슴을 후벼 팔 줄이야.
 말 한마디에도 울컥 울먹이는 것은
 내겐 없었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이라고
 가슴에 하나둘씩 와닿기 때문이라고
 눈사람이 그토록 애뜻한 것은 녹아내리기 때문이라고
 약해지는 것이 아닌 응어리진
 단단한 것이 녹는 중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울고, 슬퍼하고, 흔들리고 있어도
 괜찮겠다고

작품평 : 눈물도 슬픔이 녹아서일까요. 눈사람이 애뜻한 건 녹기 때문이란 문장 앞에서 새삼 서성거리봅니다. 우리 가슴에 있는 단단한 미움 같은 것이 눈 녹듯 녹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씩 순리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기다려주는 동안 울고, 슬프고, 흔들려도 괜찮겠다는 의지에 같이 공감해봅니다.



여보세요

윤수정

어색한 공기 속에서 따뜻함이 퍼졌다
떨리는 나를 다독여주는 목소리
여보세요
모든 시간이 두려워 소리조차 못 낼 때
먼저 수화기 너머 나를 불러준 목소리
여보세요

이제는 괜찮아졌다면 웃는 나에게
더욱 반가운 듯 나에게 귀에 답해주듯
더 밝게 내가 그리고 네가 인사한다.
여보세요
언젠가 직접 만나 인사하길 바랐는데
이제 정말 직접 만나게 되는데
내가 먼저 그에게 인사하려 한다.
여보, 안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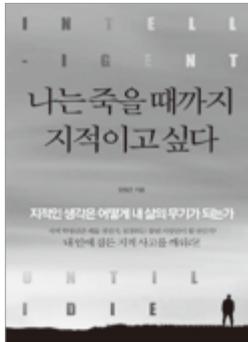
작품평 : 누군가를 부르는 그 흔한 말이 이렇게 간절합니다. 이렇게 따뜻한가 봅니다. 그냥 불렀을 뿐인데 그 목소리, 나를 부르는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 나를 불렀으니 나는 그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야겠네요. 사랑한다는 것은 부르는 것 만으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시”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죽을 때 까지 지적이고 싶다』를 읽고

김현성



저자는 출판 기획 전문가이자 출판기획사 대표이며 <책 쓰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부의 품격> 저자이다. 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단순하게 지식만 채우는 이른바 '교양속물'이 아닌 '실천하는 참된 지성인'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사유하며 '나'를 철학하는 길을 밝혀줍니다.

저는 약 10여 개월간 수용생활을 하며 약 30여 권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했습니다. 30여 권의 책을 읽게 만들어준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를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 30년 인생 중 적지 않은 책을 읽었지만 이런 책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책은 '철학' 전문서가 아니지만 분명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철학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에 쥐가 난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과연 철학이란 우리들의 삶 자체이며, 우리 삶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치에 대한 고민이고, 진리를 탐구하고 통찰을 얻기 위한 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안다'라는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정말 그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끝없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이며, 그 자체가 바로 철학이자 자기개발입니다. 다른 수용자분들도 '지식인'이 아닌 '지성인'이 되기 위한 '지적인 삶'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지적인 삶이란, 끝이 없는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잠든 이성을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 그것만 있다면 우리 삶은 곧 지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 책은 PART 1~3, 총 275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파트별로 인상 깊었던 부분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PART 1 - 배움의 의미를 읽고

배우고 고민한 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지행일치의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 삶은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살면서 언행일치의 자세는 많이 들었지만, 지행일치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 ‘행복’이란 무엇인가 깊게 고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머리를 쿡! 치는 느낌을 준 구절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원함으로써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망치지 말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한 때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속한다.”

참으로 명쾌한 말입니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수용자분들도 깊게 공감할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갖게 된다면,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이 내 손에 잡힐 거라 생각하죠. 이러한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 현재의 수감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허황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을 깨우치게 해주었습니다.

PART 2 - 삶의 지혜

저자는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의 명언을 인용합니다.

“건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병이며, 배부름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배고픔이고, 휴식을 달콤하게 만드는 것은 피곤함이다.” 이처럼 빛이 있으려면 그림자가 있어야 하고, 밤이 있어야 낮의 밝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만물은 대립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열’과 ‘냉기’ 각각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가워져도 온도는 -273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기에 냉기란 존재하지 않고, 냉기라는 건 열기가 부재하는 상태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열기는 측정 할 수 있지만, 냉기는 측정 할 수 없다. 결국, 냉기란 열기의 부재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니 “이것은 있고, 저것은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 지어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배웠고, 살면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이원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이끄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PART 3 - 관계의 법칙

저자는 시 한편을 소개합니다. 박노해의 '너의 때가 온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네 안에는 아름답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알지만
네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줌이지만
네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 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시에서 말하듯 아픔이 없는 기쁨은 없다는 것을, 이 시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고, 모든 수용자분들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책을 써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라는 걱정만 가득해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용기를 얻어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양원근 작가님께 조언도 구하고자 감사의 편지도 보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읽기를 바라고, 철학은 정말 재미있는 것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작품평 : 작은 솔씨에 금강송이 들어있고 작은 도토리에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 있듯이 때는 올 것이고 너는 이미 크다는 시가 주는 울림이 책을 대변하고 있네요. 30여권의 책을 읽고 독서록을 작성했다니, 책을 써 보고 싶다는 바람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당신은 아무 일 없던 사람보다 강합니다』를 읽고

이은재



“이렇게 살아도 되는걸까?”라는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듯 삶이 꺾일 때, 뭉개도 행복하지 않을 때, 이제 그만 놓고 싶을 때, 매일같이 살아오던 일상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잘 나갈 때 역시 이 질문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인생을 살아왔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매일같은 일상을 반복해오면서 이 질문을 몇 번이고 되뇌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잠깐의 생각과 작심삼일의 결과로 매번 같은 결말을 맞으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었고 내 삶이 바뀌길 바라왔습니다. 신은 배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스승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배움이 고했던 저는 이 책을 접하게 되었고, 제 삶을 변화시키는 작은 실험들을 통해 내 안의 지혜롭고 단단한 제 자신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삶의 변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세요.

짐을 내려놔 본 적 없는 사람은 자기 어깨에 얼마만큼의 무게가 실려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자기 혼자 5년, 10년, 20년 나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족을 모두 책임지는 사람은 나중에 습관이 돼서 내 짐을 남들과 나누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두 아들을 키워가면서, 나 아니면 안될까봐 모두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명감에 나 홀로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버티오던 중 유혹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선 후,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곳으로 오게 되었죠. 아등바등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가장 좋은 날이었던 걸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봅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은 결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일이 되고 안 되고는 여러 가능성을 안고 흘러갈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됐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뜻은 너무 한정적이어서 세상에는 내 뜻을 벗어난 좋은 일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내 뜻대로 되는 일과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그 앞에 주저앉고 오랫동안 슬퍼하면 나를 둘러싸고 이상하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됩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창피를 당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그건 고마운 일인 겁니다. 그것을 알고 느낄 수 있어 삶이 더 좋은 지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시간을 돌아보세요. 당신의 과거를 돌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진 게 언제인지 자신을 살펴보세요. 힘들면 봄이 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각자가 믿는 소망입니다. 누군가는 그렇다고 믿고 누군가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선택이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든 신뢰하지 않든 신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방향으로 1도씩 움직이세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화가에게 초상화를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쁘게 그려주세요.”라고 합니다. 예쁘게 그려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요. 저도 그래왔는데 이제는 “있는 그대로 그려주세요. 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를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이 있습니다. 타고난 사람은 자기가 봐도 놀랍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장학금을 타고, 조금만 운동해도 메달을 따고, 조금만 일해도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을 ‘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난 놈’인데 ‘된 놈’이 안됩니다. 난 놈이 된 놈이 안되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이죠. 칼이 예리한데 칼집이 없습니다. 난 사람이 되는 것은 예리한 칼날을 갖는 것과 같고, 된 사람이 되는 것은 칼집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자신을 베고, 칼 자랑을 하다가 다른 사람도 다치게 합니다. 칼을 받았으면 '된 놈'이 되어야 합니다. 철학없는 가슴은 삼류입니다. 그런 칼은 어디에도 써먹지 못합니다. 가진 자와 받은 자가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스승을 찾아야 하고 삶의 시스템에 귀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서도 자만하거나 홀로 높아지지 않기 위해 항상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오셨습니다.

사는 건 힘이 듭니다. 초등학교만 돼도 사는 게 힘들다는 걸 알아요. 근데 삶은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뚜렷하게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저항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희한하게도 뭔가를 해보려고만 하면 인생이 계속 저항합니다. 마치 중력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들어 있어요. 자연스럽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늙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뤄내고 싶은데 아등바등해야만 원하는 걸 겨우 이룰 수 있어요. 힘든데 힘든 티를 내지 말라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아니꼬운데 아니꼬운 티를 내지 말라고 해요. 할말이 있어도 참으라고 하고 표정은 늘 밝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속이 문드려져도 표정은 밝아야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힘든 티를 안내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더 많이 읍니다. 더욱 티 내기 싫어하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웃겨주려 합니다. 혹은 청소며 빨래를 하고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바쁘게 지냅니다. 그래야 자신의 힘든 과정과 마주치지 않는다는 걸 자신도 알고 있거든요. 인생은 힘든 티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표정! 표정 신경써", "힘든 티 내지 마"라고 계속 말을 겁니다. 저도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일할 때나 가족들 앞에서는 활짝 웃습니다. 이게 인생이더군요. 힘든 티를 다 내고 살 순 없잖아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힘든데 표정을 아름답게 지어야하고, 내 주변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 좋은 것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운동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힘들면 잠시 쉬어도 되고 남들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운동하다 힘들다고 인상을 써도, 힘든 티를 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감정을 소모하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다가 힘들면 잠시

주저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려고 하는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만 놓지 않는다면요. 삶은 힘듭니다. 죽고싶을 때도 있고, 죽고싶지는 않지만 살고싶지 않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도, 인간관계도, 사업도, 살면서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힘이 들겠지만 이 끝이 어딘지 가보고 싶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면 자주 떨어져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게 참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진실하게 꺼내놓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다보면 장마도 찾아오고 곰팡이도 피어날 것입니다. 가끔씩 나를 햇볕에 말리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삶의 곰팡이를 꺼내 햇볕에 쪼이고 바람도 통하게 해주십시오. 책을 덮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자연도 찾으십시오.

마음을 산책시키십시오.

작품평 :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들 때 어떻게 대답하나요. 마음을 산책시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난 놈'이며 '된 놈'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예리한 칼날을 갖고 있으면 칼집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비유로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네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를 읽고

조두성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나 부자가 되는 법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돈을 보면 쓰기에 바빴고 놀기에 바빴습니다.

제 생각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로또 1등에 당첨되거나 대기업 같은 직장에 다녀서 열심히 돈을 저축해야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저축하는 사람은 패배자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며 제 생각과는 다른 논리를 펼치기에

이 책에 흥미가 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와이에서 태어났고 자랐으며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친아버지와 정규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중 저자는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의 가르침을 수용하며 자기 내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며 결국 부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된 친구의 아버지께 받은 가르침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것으로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싶은데 당장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출발점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으로 저자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행했던 10단계의 철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 정신의 힘(현실보다 더 좋은 이유를 찾으라) -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떤 실패도 이겨 낼 수 있는 강력한 감정적 이유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여러 차례 실패도 하여 돈을 잃기도 후회를 겪기도 했지만, 그의 감정적 이유가 강력했기에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2. 선택의 힘(매일 같이 선택하라) - 사람 대부분은 부자가 되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들은 돈에 관심이 없다고 스스로 말하거나 아직 젊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거나 그 외 무수한 핑계를 대고 이런 변명은 그들에게서 가장 귀중한 자산인 시간을 앗아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한다.
3. 협조의 힘(친구를 신중하게 고르라) - 저자는 가난한 친구와 부자인 친구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가난한 친구들에게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부자인 친구들에게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정보와 그들의 지식을 배운다.
4. 배움의 힘(하나의 방식에 통달하라. 그런 다음 새로운 것을 익혀라) -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지겹다면, 혹은 충분한 돈을 벌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방식을 바꿔서 돈을 벌어야 한다.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경매 부동산을 사는 법' 등 전공과 상관없는 지식을 배웠고 거기서 공식을 얻어 실행을 한 결과 많은 돈을 벌었다.
5. 통제의 힘(자신에게 먼저 내라) -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자산 부문으로 돈을 배치해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다면 금융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정적인 곤란에 빠지게 하지 않기 위한 동기 부여로 그 상황을 활용해라.
6. 조언의 힘(중개인에게 넉넉하게 돈을 내라) -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은 필수다. 좋은 중개인은 좋은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도 해 준다. 그들에게 내는 돈은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 덕에 버는 돈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에 불과하다.
7. 얻는 힘(인디언처럼 주고받으라) - 인디언 기버는 '한 번 준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 투자와 자산 부문에서는 인디언 기버가 되는 것이 핵심이다(투자 원금은 가능한 빨리 돌려 받아야 한다는 의미).

8. 짐승의 힘(자산을 이용해 사치품을 사라) - 자산(주식, 투자) 등을 이용하여 현금 흐름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여 사치품을 구입 하라.
9. 신뢰의 힘(당신의 영웅을 선택해라) - 존경하는 영웅이 있다면 그 영웅의 모든 것을 흉내 내려 노력해라. 그것은 모든 것이 쉬워 보이고 시도해 보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10. 주는 것의 힘(가르쳐라. 그러면 받으리라) - 당신이 가진 것이 있다면 너그럽게 그것을 나누어 주어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르칠수록 당신 또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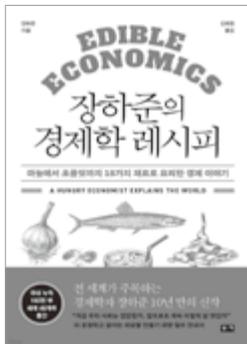
이 책의 저자는 재정적으로 자유를 성취하고 큰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비결로 근로소득을 최대한 빨리 투자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꼽았다. 앞서 이야기한 10가지 단계의 철학을 통해 이 능력을 단련했고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지만, 아직도 10단계의 철학을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10단계의 철학을 모두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누구나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수용 생활을 하는 수용자들에게 성공적인 재정적 미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꼭 한 번 읽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작품평 : 한때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광고 카피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요. 돈을 많이 버는 방법과 부자가 되는 법을 위한 10단계 철학을 핵심내용으로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청룡의 해에 마음도 부자 되세요.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를 읽고

이호삼



인생이라는 긴 도로위로 달리다 보면 가끔은 신호에도 걸리고 우회를 해야하는 일도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인생에서 있을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이 일에 대한 결과로 탄탄대로일거라 믿었던 제 인생에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졌고 저는 지금 ○○○○교도소에서 그 시간을 감당하며 지나간 저의 날들을 반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며 구매부에서 출역을 하며 시간을 보내던중 같이 출역을 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던 선임이 추천을 해주어 책을 받아 보았습니다. 애초에 경제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어떤 원리나 경제학의 개념도 잘 모르던 저였기에 동료들이 읽던 경제서적은 많이 어려웠지만 이 책은 좀 쉽다고 하여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대망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지만 두 번 세 번 읽다보니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장하준 교수님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을 공부했고 여러권의 경제학 서적을 쓰신 분으로 현재도 대학 강단에 서고 있는 분이고, 요리에도 관심이 많으셨기에 오래전부터 요리와 경제학을 조합해서 쓰고 싶다고 생각하며 집필을 시작한 책이 바로 이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각 챕터별로 음식의 재료들을 소개하며 그와 관련된 경제의 이슈들과 그 이슈를 통한 용어 등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예를 들자면 초콜릿이

있다면 그 초콜릿으로 할 수 있는 요리와 저자의 가정과 경험을 통한 추억을 소개하며 현재 60대의 저자가 지난날 살아오면서 만났던 일들을 소개하는 형식에 우리나라의 전쟁 이후 미군을 통해 들어왔던 초콜릿이 우리 사회에 끼쳤던 영향과 그 시기에 파생된 경제적 영향을 소개해주어 역사와 경제 그리고 음식에 대한 것들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일석이조 아닌 일석삼조를 볼 수 있는 도서였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얻은 것들을 조금은 열거해보자면 몇가지로 압축을 할 수 있을것인데 지금부터는 이 책을 통해 얻은 것들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책이 「경제학 레시피」이기에 당연하게도 경제라는 것에 대한 생각과 개념에 대한 정립입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경제학이나 경제라는 말은 우리같은 일반인이 쓰는 단어라고는 생각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금 배운 사람들과 기업등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크게 짜놓은 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했고 펀드매니저나 여의도 금융가에서나 쓰는 단어라고 그저 치부해버리며 나오는 연관성이 없는 단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자 장하준 교수님은 저의 생각을 바닥부터 다시 생각을 할수 있도록 재정립의 단계를 심어주었고 그로 인해 “경제”라는 말이 다시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거창하게 기업간의 거래나 코스닥, 코스피 같은 증권가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격을 비교하면서 구입하고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그냥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지출이라는 것이 생기고 이것을 구입하는 대신 다른 무엇으로 하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것이 바로 생활경제이고 경제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경제는 거창한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이곳에서도 늘 구매나 자비구매를 하는것도 바로 경제라는 개념을 저자는 저에게 선물로 알려주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저에게 준 것은 두 번째로 「레시피」라는 것입니다. 레시피라는 말은 우리말로 조리법이라는 말로 “어떤 요리나 음식 등을 할 때 이 순서대로 요리를 하시면 어떤 음식이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인데 장하준 교수님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 살아갈 저의 인생에서 경제학 그리고 생활의 경제에서 이런식의 레시피를 통해 계획을 세워보세요.’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투자를 하기에 앞서 누군가의 조언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것보다 내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재화를 투자를 하게 될 때는 먼저 그 일에 대해 최대한 밀요리(회사의 재무상태)를 하고 육수(현재의 생산 또는 실적)를 내어 그 요리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맛있는 요리(투자에 대한 결과) 맛볼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요리일지라도 레시피에

따라서 그 요리의 맛은 달라지기에 그 레시피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점에서 조금은 벗어나지만 요즘 광고에서도 「레시피는 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상황 등에서도 레시피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것도 어쩌면 레시피를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요리를 하다 이곳에 온 것은 아닐까 텀으로 반성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삶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찌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제 삶에 대해 진지하게 대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장하준 교수님은 유색인종이라는 약점아닌 약점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아시아인으로는 정말 드물게 뉴욕대에서 강단에 서고 경제학도 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약점 아닌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자세에 대한 멋스러움이 머금어 있지만 챗터 중 마늘이나 굴에 대한 부분에서는 음식과 문화에 대한 차이 등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는 가치와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이곳 저곳에서 「한국인은 마늘 냄새 또는 김치냄새가 난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많이 봐오고 들어봤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 역시 내가 보고 내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비추어질 내 모습이 더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내 자신에 대한 만족 보다는 보여지고 평가가 되어지는 그 언어에 대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 대한 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경제학에 대한 생각과 크다면 크지만 별것이 아닌것일수도 있는 삶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근현대사의 식재료 키워드까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시간을 어떤 발전이 없이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몸이나 내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멀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라는 개념에 조금 더 다가갈수 있고 이후의 삶을 더 든든히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과감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읽고 나가서의 삶을 살 때 그 삶을 더 멋진 레시피로 살아갈수 있길 바라며 우리 모두 더 맛있는 인생을 만들길 바랍니다.

작품평 : 이 책을 통해 세 가지 즉 경제에 대한 생각과 개념 정립, 생활의 경제에서의 레시피, 삶에 대한 자세를 얻으셨군요. 잠시 멈춤 버튼이 눌러졌을 때 주저않지 않고 뒀 준비를 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지요. 삶이 더 멋진 레시피로 채워지길 바라요.

“독후감” 부분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소감문



집중인성교육 과정을 마치고

오형인

내 생의 삶에 기억 속에서 지울 수 없는 2023년 그 시간 또한 다사다난 단어 속에 흘러가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지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이곳 생활도 수개월이 나의 가슴속에 피멍으로 남기며 시간은 아무 생각없이 흐르는구나. 진심으로 나의 가족과 나를 위하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글을 통해서 큰 실망을 드린 점 정중히 머리 숙여 염치없는 선처와 용서를 구한다.

얼마 전에 거실에서 동물에 세계를 시청하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나의 가슴속에 저축이라는 명분으로 저장했다. 깊은 바다 속에 사는 문어는 천적을 피해서 돌틈 사이에 자신의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까지 천적을 방어하고 자신의 알에 산소공급과 주변을 정리하면서 먹지도 먹지 않고 책임감과 모성으로 부화 시킨 후 자신은 다른 이에게 자신의 몸을 영양분으로 헌신하고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왠지 나 자신에 부끄러움과 작아짐을 느꼈다.

올해 마지막 인성교육 수료 과정에 참여 기회가 주어짐에 그나마 마음에 위로감이 들었다. 1일차 박○완, 진○현 주임님과 향후 14일 과정 소개로 인성 교육을 시작했다. 외부 강사님이○ 강사님의 꿈을 찾아서에서 나는 많은 역경 속에서도 긍정적 생각으로 삶을 이기다보면 향후 웃음에 꽃이 피울 수 있음을 숙지했으며 미술치유 김○민, 안○현 강사님의 강의 시간에서는 그림 속에서 나 자신을 표현해서 소통에 방법과 마음에 여우가 필요함을 배웠고, 류○인 강사님의 강의에서는 나에게 감정 관리를 이행하면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소통이 필요함을 저축했다.

그리고 김○백 강사님의 여행속에서 삶을 윤택함을 느끼며 내가 찾을 수 있는 작은 여유라는

단어 속에서 깊은 의미도 배웠다. 음악 치유는 나의 가슴에 넣어둔 답답함에 탈피와 행복을 김○희 강사님의 열정 속에서 느껴 이행함을 마음에 담았다. 인문학 강의 속에서는 확실하게 도움주신 김○오, 김○인 강사님은 나에게 배움에 평생에 가장 소중한 강사님이다. 특히 참선과 명상을 통해서 나의 내면 속에서 다스림으로 심리상태를 평온함으로 유지하고 육체와 심신을 컨트롤 할 수 있음을 인지했다.

그동안 인성교육을 통해서 나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고, 선과 악, 신뢰와 현신, 사랑과 봉사 기타 등등 많은 예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된 교육에 감사드린다. 비록 짧은 교육 과정이었어도 교육 과정을 통해서 향후 나의 삶에 큰 초석으로 삼아 남은 생을 실천으로 승화하여 그동안 삶을 반성하며 참된 봉사와 희생으로 사랑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눔으로 이행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인성교육을 함께 한 23년 10기 동료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서로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웃음으로 사회에 우리 함께 기여 할 수 있기 바라며 큰 꿈속에서 실천하며 각자에 삶에 대운이 가득 드시길 바라며 모든 일이 만사형통으로 이루어지시길 기원한다. 노력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화려하고 깊은 향기가 가득한 아름다운 꽃이 피어 우리에게 웃음을 준다. 진심으로 나의 가슴에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행복하세요!

작품평 : 집중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신과 육체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란 생각이 듭니다. 감사분들의 이름이 일일이 호명하는 걸 보면 그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큼인지 읽게 됩니다. 생각하고, 마음을 먹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실천까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직업훈련을 마치며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구속되었는지라 직업을 갖기는커녕 아르바이트조차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직업훈련이란,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훈련해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하던 저는 서둘러 직업훈련을 신청하여 “정보통신운용”이라는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정보통신운용은 교도소 내에서 수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입니다. 당연히 IT 관련 공부를 하고, 사회에서 IT 관련 직업에 종사했던 훈련생들도 여럿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매우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저희가 수용자라고 해서 편견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따라 저희를 이끌어주셨습니다. 난생처음 배우는 학문인지라 어렵기도 했지만, 선생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수업해주신 덕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전자기기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50대 이상 어르신들조차도 모두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수업은 훌륭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학습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이미 사회에서부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교사이셨기에, 수많은 제자를 취직시켰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출소 후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번 공부하여 자격증을 따는 경험을 하게 되면, 다음번 공부는 더욱 쉬워진다. 그러니 이 경험을 밑천으로 삼아서 꼭 IT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원하는 길로

나아가라”라고 조언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덕분에 하염없이 시간만 보내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자기 계발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슷한 직업훈련 과정에 한 번 더 지원하여 출소 후에도 IT분야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저와 친한 다른 수용자는 출소 후에 IT를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도 합니다. 또 다른 수용자는 독학사 공부를 시작하여 학위를 취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처럼 직업훈련은 수용자의 출소 후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수용자는 그저 남은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여차피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않겠습니까? 직업훈련은 수용 생활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뿐더러 밝은 미래를 열어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출소 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수용자라면 직업훈련을 적극 권장합니다.

전국 교도소의 직업훈련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스승이십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침에 걸맞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국의 직업훈련생 여러분! 부디 출소 후 합법적인 직업에 종사하며 새로운 삶을 누립시다!

작품평 : 몸으로 배운 것은 잊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업훈련도 마찬가지겠지요. 다양한 직업훈련 중에 자신에게 잘 맞는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가서 당당하게 역할을 해내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라면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머리와 가슴으로는 알면서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법인데 극복해내셨다니 대단합니다.

“소감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신정민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께

문복윤

아버지! 하늘나라는 어떠하세요?

저희 가족 잘 지켜보고 계시죠? 못한 불효자 아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보낸지 일년이 넘어서야 정신을 차리고 펜을 들어 씁니다. 아직도 아버지의 변고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늘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생각에 목이 메입니다.

한동안 아버지를 뵈면 목이 없어 하늘 보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실 때 고개를 들어 아버지가 계시는 하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각과 보고 싶을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물을 마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암울합니다. 그래도 물을 마시는 그 몇 초 동안은 아버지께 그동안 못한 말들과 죄송한 심정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좋은 시간입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저 또한 세상에 혼자가 된 것 마냥 전의를 상실하고 괴로움에 하루하루를 보내며 어린 시절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평소에는 술을 잘 마시지 않으셨으나 일 년에 한두 번 술에 취하시면 자고 있던 저와 누나를 깨워 일장 연설을 하시며 어린 시절 먹고살기 힘들어 학교를 포기하고 동생들 뒷바라지하며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하시며 늘 끝에는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라고 하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한 힘든 세상을 살며 하시는 뉘두리라 생각했는데 지금에서야 그 말을 회상하니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하신 듯 하여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다시 태어나도 아버지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때문에 포기한 학교도 다시 하고 싶어 한글 교과서와 운전면허시험지를 신줏단지 모시듯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휴여 시간이 되면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무심했던 제 자신이 천추의 한이 되어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못다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신 아버지께 존경한다는 말과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살아생전에 제가 아버지께 잘못된 부분만 생각이나 한참 동안 눈물만 흐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모든 것들은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바뀌고 죄송함이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께 더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지 못했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애정을 표현이 서툴러 서먹서먹한 부자였던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그리움이 되고 죄송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마음도 보여주고 사소한 고민도 이야기하며 친구 같은 부자 사이가 되길 바랬는데 너무나도 저의 걸을 빨리 떠나버리셔서 아쉬움에 사무치게 눈물이 납니다. 저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지 못한 채 한없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조건 없는 사랑과 아버지의 모습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살겠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고비고비를 이겨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고도 늘 해 주지 못해 미안해 하셨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심정으로 이 편지를 바칩니다.

우리 가족은 어느 가족들보다 행복하고 부러울 것 하나 없는 늘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가족이었지만 저의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곳으로 들어오면서 저에 대한 주변 지인, 친척들의 기대도 희망도 모두 무너져버리고 아버지께서도 극도의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시면서도 저에게 접견을 오셔서 미안해 할 사람도, 미안해 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미안하면 바꿔 나가야 할 사람도 저라고 하시며 고개 숙이고 있는 저를 위해 깨달음을 주시며 응원해 주시던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사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머니께 아버지께 못 한 효도 다 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지켜 봐주세요.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 아버지 기일을 맞이하며 불효자 문복윤 올림

작품평: “미안해 할 사람도, 미안해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미안하면 바꿔 나가야 할 사람도 저라”는 큰 깨달음을 주신 아버지. 이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오늘은 물을 마시며 하늘을 보세요. 이제 당당히 하늘을 보라는 아버지의 미소가 전해질 거예요.

고마운 아내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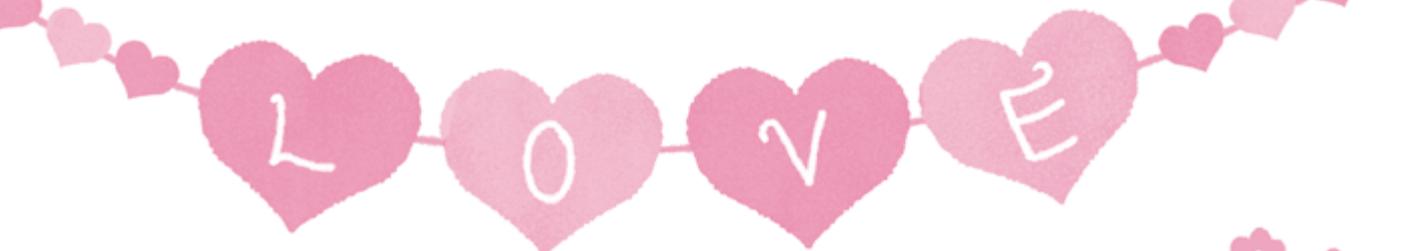


이재철

내가 살아 온 오십이라는 삶에서 반평생을 같이한 당신, 지난 일 년이 넘는 시간을 나의 잘못으로 희미한 등불조차 비치지 않는 춥고 어두운 날들의 연속이었으리라 생각한다.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 나와 간호사라는 직업으로 봉사하며 바른 삶을 살아 온 당신은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 했었던 것 같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며 평생을 같이 하자 다짐을 하고, 14년 전 우리의 예쁜 딸 ○○가 축복으로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 갈 삶 중에 이런 날이 올 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의 무모한 욕심으로 사업이 힘들어져 나락으로 떨어져 다시 일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번 빛나가기 시작한 삶은 나의 생각과는 상반되는 방향으로 치달았고, 나로 인해 외롭고 힘들었던 당신은 이제 험한 세상에 ○○와 홀로 남게 되었구나. 나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루고 바로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몸 안에 암덩이라는 불행이 자라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나 보다.

또한 나의 부재로 인한 사업상의 채무와 생활비 등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까지 하게 되었구나. 당신하고는 절대 어울릴 것 같이 않던 불행이라는 말이 내 눈앞에서 당신과 ○○가 불행해지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지켜 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너무나 미안하고 죄스럽구나. 접견을 마치고 돌아서는 너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라 당신에게 편지를 쓴다. 당신의 뒷모습이 앞모습보다 지금의 마음을 더 잘 전한다는 생각이 든다. 얼굴은 웃고 있어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기다리다 만나지 못해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처럼 별일 아닌 듯 숨기려 해도 무너질 듯 슬퍼 보이는 구나.



차라리 바라보며 “여보 어떡해, 너무 힘들고 무서워.”라고 하며 아파하고 슬퍼했다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조금만 참고 기다려 달라고 힘내자고 위로라도 할 수 있었다면 내 마음이 덜 아프고 덜 힘들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 걱정 말고, 당신은 우리에게 하루라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해, 아프지 말고 꼭 약속!” 이라고 내 걱정을 하며 “한 번은 용서해도, 두 번은 안 돼, 알겠지 힘내 여보!”라며 당신의 모습은 목소리와는 달리 왠지 생기 잃은 꽃처럼 힘이 없어 보이는구나.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야. 어떤 책에선가 ‘발아래 진흙탕 때문에 걷기 힘들어도 그 덕분에 높이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음’ 어둠이 잠시 눈앞을 가린다 해도, 그 덕에 희미한 빛을 발견할 수 있음을, 낭떠러지 끝에서 손을 놓아 버린 사람이 어디선가 밧줄을 찾아 들고 나타나 나를 구해 줄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처럼,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움에도 슬퍼만 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앞으로 찾아올 행복에 기뻐하며 웃음 짓는 연습하기로 하자.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더 큰 당신 몫의 행복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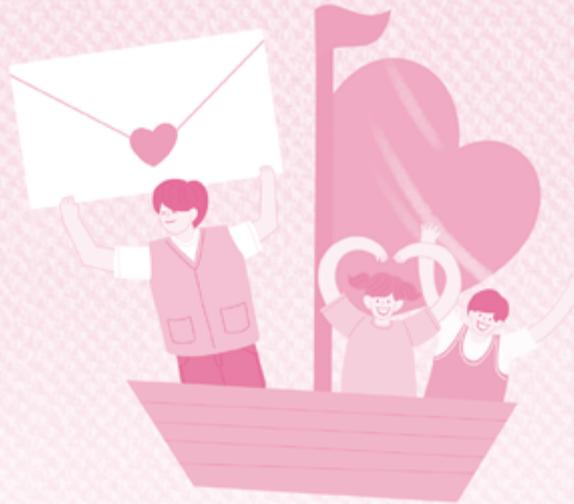
로키산맥 해발 3,000미터 높이에 수목한계선이라는 지대가 있다고 해, 여기의 나무들은 춥고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사람이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모습을 한 채 자란다고 해, 추위와 눈보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나무들은 무릎 꿇고 사는 삶을 배워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공명이 잘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이 무릎 꿇은 나무로 만든다고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구나, 우리는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 속에서 순응하는 법을 배우며 서로가 삶을 살아가겠지

사랑하는 나의 아내 ○○야. 이젠 찾아올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연습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고, 돌아서 가는 너의 뒷모습에 하고 싶은 말 이었던 것 같다.

○○엄마! 아직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병마와 잘 싸우고 버티 줘서 힘들어도 ○○를 잘 키워서 고맙다고. 당신의 손을 꼭 잡고 얘기하고 싶다. ○○야! 고맙고, 사랑해

작품평 : 어쩔 지금이 발아래 진흙탕 때문에 걷기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도 서로 걱정해 주고 믿어주는 부부의 사랑은 높이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버팀목이지요. 몸살 앓명이라도 그 앞에서는 힘을 못 쓸 거예요. 병마와 잘 싸우고 이겨내리라 믿어요.

아버지와 나의 삶



김유일

삶이 힘들 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지쳐있을 때 언제나 제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아버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세상에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아버지였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갇힌 것처럼 갈팡질팡할 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환한 등대같이 저의 길을 밝혀주신 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기일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지 못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상이 나를 외면해도 끝까지 저의 손을 잡아주신 아버지가 계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지금까지는 세상을 등진 채 홀로 지내왔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지만 올 한해는 제게 있어 따뜻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세상만사가 너무나 실없고 오늘에서야 내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 몰아쳐도 내가 걸어가는 길은 환한 반딧불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중년의 나이가 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도 조금은 커진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움츠러들게 할지라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내 사진 스스로 다짐해봅니다. 함께 걸어갈 동반자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짝신도 짝이 있듯이 언젠가는

내가 사랑하는 배필을 만날 수 있을거라 호언장담해봅니다.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으로써 그 책무를 다하고 결과는 하느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닌 대차게 나아가는 그런 당당한 내가 되고자 소망해봅니다.

인생은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을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며 현명하게 오늘을 대차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중년의 나이가 되다보니 어느덧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선견지명으로 인해 지금 내가 처한 이 현실이 너무나도 혹독하고 가혹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자존감을 높임으로써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오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비빌 언덕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왔지만 그것은 나의 착각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제 곁에는 항상 오투기처럼 저의 곁에서 저를 지지해주신 아버지가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적으면서 지금도 저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계실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글을 마치면서 조금더 성숙한 제가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작품평 : 세상사람 모두가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손을 잡아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부모지요. 올 한해는 따뜻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 믿음이 매 순간순간 따뜻함으로 채워질 거예요. 당당한 내가 되고자 하는 소망에 응원 한가득 보냅니다.



박○교 변호사님께



변호사님 지금까지 잘못된 선택을 해오며,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시련과 같다면 변호사님께서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여정의 팻말이자 나침반이 되어 주십니다.

원래 해오던 것이 정답이고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반성한다고 하지만 억울하다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뒤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에게 찢쩍대며 하고 싶은 말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소하다 여길만한 것들도 성실히 답해주셨습니다.

그 어느쪽도 기분이 나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 제대로 볼수 있게 해주시고 잘못을 명확하게 짚어 지적해 주셨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고 알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고초려를 떠올리게 하듯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찾아다니시고 일해주셨습니다.

이모든 것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고 신기한 경험이라서, 지금와서 생각해보면 애초에 이 길이 정답일 수밖에 없기에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고 싶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고 오래 걸릴테지만, 쉽지 않음이 명백하지만 변호사님께서 힘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에 걸맞게 저도 후회 없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할수 있는 일뿐 아니라 할수 있는 일들을 만들고 늘려가 뭐든지 감내하며 해낼 것입니다.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과정과 순간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우연들이 연속되어 그 우연들이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우연들이 연결된 이것은 제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처럼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기회와도 같은 이 인연에 감사하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갈 것입니다. 변호사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박○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작품평 : 누군가에게 긴 여정의 팻말이자 나침반이 되어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변호사님이 그런 분이려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를 넘어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써의 믿음이겠지요. 우연이 연속되면 필연이라 하지요. 감사함을 전하는 편지가 필연이라는 증거겠지요.

“서간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주셨습니다.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정우석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1월 11일 자로 ○○교도소 ○○지소에서 5개월간의 재판을 끝마치고 형이 확정되어 기결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정우석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감상문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의 방학 숙제로 방학 동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거나, 영화에 대한 감상문을 쓰는 것이 싫었던 숙제 중의 일부였습니다.

작품평

누구나 흔하게 하는 말이며 한 번쯤 들어본 말이 언젠가 어느 상황에서는 위로보다는 상처로 다가올 수 있음을 또 알아갑니다. 용서의 글을 통해 생활이 바뀌는 계기가 되어 글로 남기는 것은 큰 진전이지요. '새길'의 역할이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네요.

세월이 흐르고 지나 야속하게도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음을 속 깊이 느끼며, 어느덧 만 28세로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계란 한판... 곧 30세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느끼기에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만큼 느끼지 못하였고, 덜 성숙하였는지 교도소라는 이곳에 처음 오게 되었고, 남들보다 힘들었던 수용 생활속에서 ○○교도소의 한 팀장님께서 챙겨주신 수용자 종합문예지 새길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새길이라는 책에서 용서의 글이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보다 길고 긴 시간을 이곳에서 지내셔야 하는 수용자분들과 이미 오랜 시간 이곳에서의 생활을 하고 계신 수용자분들의 용서의 글은 저에게 있어서 수용 생활을 송두리째 바꾸어주신 계기 중 일부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다 힘들어', '너 보다 어려운 사람도 많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위로보다는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말에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대하여 상처를 받았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었으니까요. 아직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다행이지만, 이곳 교도소 안에서 자유를 빼앗긴 채 수용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새길이라는 책을 읽고 계신 수용자 여러분, 희망 가족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조금의 힘이 되어드리고자, 위로가 되어드리고자 이렇게 펜을 들고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이 책에 시와 글을 써주신 수용자분들도 다 각각의 어려움을 느끼고 감정을 담아서 글을 쓰고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와 수필을 읽어보면 어느 글은 슬픔과, 어느 글은 미소를 짓게 하는 그런 일들을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담아 자세하게 적어놓으셨으니까요. 수용자 여러분들도 많은 공감을 하며 새길이라는 책을 읽으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수용자 여러분에게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니 새길이라는 수용자들을 위한 책도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저 또한 많은 어려움과 우울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혼자만의 마음가짐으로 때로는 누구의 따뜻한 한마디로, 위안을 삼고, 위로가 되고, 마음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지요.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새길이라는 책은 이러한 계기 중의 하나였습니다. 많이 답답하시고, 갑갑하시고, 막막하시고, 어렵고 힘드신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계신,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의 자신이 무너지면 밖에서 지켜주고, 기다리고, 도와주고 있을 분들 또한 당연히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고, 해가 지면 달이 뜹니다. 2023년이 지나 2024년이 왔듯이 2024년도 지나 2025년이 올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가꾸어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자기를 사랑해야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다른 누군가가 지금의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도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글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 이곳에서의 남은 기간을 잘 생활하셔서 마음 건강히, 몸 건강히 가족의 품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골의 한 교도소에서 수용자분들께 올립니다.

행복과 사랑은 아무나 하나

박병훈

작품평

한 수용자의 추천으로 글을 쓰게 된 것을 다른 분들께 전하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묻어나네요. 그 마음에 고마움과 그리움, 소중함이 들어있고 사랑과 행복, 평화가 동행하고 있고요. 좋은 언어와 시선을 가지는 동료애는 실천에서 비롯된다는 말씀도 오래 남습니다.

저는 “새길”이라는 수용자 종합문예지에 대해서 뒤늦게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주 우연히 법정대기실에서 수용자분과의 만남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참고가 될만한 말을 듣고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글 쓰는 것을 조금 좋아해서 수필인지, 시갈지 않은 시를 꼬적꼬적 써 보면서 자신에 도취되어 감상에 젖곤 했는데... 그 탓으로 지난 겨울 “새길” 문예지에 시와 서간문을 써서 보낸 것이 수록된 것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밤을 잠을 설치고 누워서 눈물도 흘렸습니다.

저도 한 수용자분에 추천으로 글을 쓰게 되었듯이 모든 수용자분들도 함께 참여하는 “새길” 문예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싫든좋든 매일 감사쓰기도 해보는 것이 어떨까 묻고 싶습니다. 관에서 하는것도 있고 전국적으로 하는 문화행사도 있으니 틈나면 책을 읽고 자신에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보람있고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보고 싶은 어머니”라는 글을 쓰면서 새삼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 그리고 소중함을 가슴이 멍하도록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생활을 하면서 저희 수용자분들이 갖어야 할 마음 중에서 노래제목처럼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말과 그결에 “행복과 평화”의 단어를 더 붙여 보고 싶네요. 사랑은 어느 누구도 쉽다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람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꾸준히 실천해야 하기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행복과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저는 2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과 반성,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용서를 비는 날이 수도 없었으며 이렇게 잘못을 후회하면서 지금의 수용에 삶이 보잘 것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분히 생활을 하다보니 내일이 그립고 밝은 미래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어느 성인의 말처럼 “겸손은 사랑의 파수꾼”이라는 뜻을 생각하며 모든 수용자 분들에게 행복과 사랑 그리고 평화의 말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용생활하는 현실에 고통을 딛고 반항하지 않으며 그것을 기회로 삼아 더욱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간다면 옳고 그름에 말처럼 그 말이 서로 어우러져 자신들이 소망하는 인생에 탈바꿈이 되리라 봅니다. 우리는 낮설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마냥 손을 놓고 실의와 절망에 빠지거나 현실에 얽매여서 갇히면 자신의 삶이 더 무겁게 마음을 짓눌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가 각기 다른 모양으로 죄를 지어왔지만 수용자분들께서 한걸음 뒤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의 고통을 아파하고 그 아픔과 슬픔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해주는 배려심 속에서 행복이 있고 사랑이 넘쳐서 평화가 항상 우리 곁에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출역을 하면서 행복을 찾고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해 반성하고 용서를 비는 마음을 갖게하고 마음에 평화가 불연듯 찾아와서 겸손함이 우리나라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인생길 중에서 일부분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값진 한점에 인생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저와같이 많은 곳에서 출역을 하면서 봉사하시는 수용자분들께 수고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같은 동료애를 갖고 좋은 언어와 시선을 가지고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눈이라도 마주쳐 보면서 즐겁게 생활한다면 행복과 사랑은 찾아오고 그곳에 평화는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 생활의 위기는 남탓으로 비롯되고 남의 허물과 잘못, 티끌을 무조건 질책만 하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듯이 서로가 갖고있는 허울과 위선을 벗어버리고 생활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보이고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로운 수용 생활이 될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부터 잘못 쓴 가면과 편견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나부터 평화롭게 사는 길이라 믿고 싶습니다. 이제 2024년 새해를 맞아 청룡해처럼 생동감 있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평화를 전국 수용자분들이 함께 실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이윤호

작품평

'새길'을 통해 도움을 받던 내가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글로 표현되었네요. 이렇게 시작하면 되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진솔하게 써 보다보면 내가 성장하게 되어요. 글을 보고 위로를 받는 분도 생기고요. 여자 친구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네요.

저는 2023년 7월 18일 체포되어 ○○구치소에 상습사기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이윤호입니다.

구속당한 후 '새길'이라는 좋은 책을 알게 된 뒤로 봄호, 여름호, 가을호, 겨울호를 읽으며 반성문을 쓸 때 좋은 글귀나 다른 사람들이 구속되고 느끼는 감정과 배움에 대해 읽으면서 다같이 힘든 상황에서 힘을 내고 버티는 모습을 보고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매번 제가 도움을 받던 새길지에서 이번에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하는 마음에 새길지에 저의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접견을 와준 여자친구에게 새길지 작성 후 제출한다니까 "필력이 안 좋은데 뽑히겠어?" 웃으면서 "열심히 써서 될 때까지 해봐."라며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고 저의 이야기도 새길지에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겨울호 용서의 글에 스포츠 토토로 인하여 평범한 대학생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수감이 된 한준희씨의 글이 매우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호기심으로 시작한 도박으로 ○○교도소에서 1년을 복역하고 출소 후도 도박을 끊지 못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저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도박을 시간을 되돌려서 시작하지

새길지 겨울호를 읽고

않았더라면 저나 준희씨나 교도소에 들어올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소록도'라는 곳에 가서 한센병 환우분들과 일주일씩 지내면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약이 개발되어서 전염이 되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문동병'이라고 전염된다는 식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소록도에 마을을 이루어 정착 생활을 하시게 되신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온갖 고문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해오셨지만 그때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몸도 불편하신데 항상 웃으면서 지내시고 서로 의지하면서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지내셨습니다.

소록도에 유○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남편분이 환자분이셨지만 지금은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셔서 지내시는 것입니다. 제가 도시로 안가고 여기에 지내는게 불편하지 않으신지 여쭙어보니 “여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내가 떠나게 되면 남아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하게 지낼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지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도움보다는 피해를 끼쳐 피해자분들이 생기고 저로 인하여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하여 피해를 끼쳐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남들한테 작은 도움이라도 주면서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징역에서 작은 거실에 모르는 사람들과 모여지내니 얼마나 불편하고, 마음이 안맞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필요한 것들은 도와주면서 힘든 시간을 같이 이겨내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좋게 생각이 되면 추억, 안 좋은 생각으로 남으면 경험 이라듯이 이 길고 긴 시간동안 좋은 추억 쌓아 많은 것을 배우고 지내려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에서 지내면서 4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힘든 생활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지내시고 지금도 편지로 저를 응원해주는 형님들을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보다 세상에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웃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듯이 저희도 웃으면서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조금 더 참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지냅시다.

미결수 분들은 좋은 재판 결과가 있으시고 기결수분들은 가석방 심의 통과를 기원하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얼른 집으로 돌아갑시다. 저의 부족한 필력의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상문” 부문은 새길 심사위원 시인 이지호 선생님이 작품평을 해 주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원고는
각 교정기관
담당자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편집위원장 조진호(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편집위원 신봉호(서울지방교정청)

전민영(서울지방교정청)

편집간사 이충(서울지방교정청)

심사(가나다 순)

심사위원 문복희 위원(한국문인협회 시인)

심사위원 신정민 위원(한국문인협회 시인)

심사위원 이승하 위원(한국문인협회 시인, 평론가)

심사위원 이지호 위원(한국시인협회, 한국작가회의 회원)

봄의

— 최현중 | 전주교도소 교위



밀알 같은 씨앗 하나가 나무와 꽃을 피우네.

심는 이의 마음에 따라 사랑의 나무가 되고, 미움의 나무가 되네.

간절한 소망과 사랑이 듬뿍 담긴 씨앗은 모두에게 희망과 무더운 날 그늘이 되어주는 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네.

시기와 질투, 미움이 담긴 씨앗은 모두에게 아픔과 눈물, 무더운 날 찜통 같은 더위를 주고, 불행의 꽃을 피우네.

봄! 만물이 요동치는 활력의 봄!

심는 이의 마음가짐에 따라 자라나는 나무와 꽃.

담안에 모두의 희망과 사랑이 듬뿍 담긴 씨앗을 하나 심어보세.